

민간 부채 작년 4540兆 가계빚, 실소득의 1.7배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작년 말보다 7.1%p ↑ 사상최대
가계 부채만 1년새 7.8% 늘어
한은 “금리 올려 부채증가 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와 자산 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보다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이 약 2.2배 많았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은행은 불안한 민간의 빚더미가 신용·유동성 위기로 변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0.8%(추정치·약 4540조)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 수치로 전년 말보다 7.1%p

인트(p) 올랐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뿐 아니라 같은 해 3분기 말(220.5%)보다도 0.3%p 더 올랐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 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 부문의 대출금, 정부유자, 채권 등 부채 잔액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1년 전보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106.1%)이 2.7%p, 기업신용 비율(114.7%)이 4.4%p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신용·기업신용 비율의 겹(장기추세와의 격차)은 각 3.2%p, 7.5%p로 전년 말보다 2.6%포인트, 0.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한다.

가계부채(1862조1000억 원)만 따로 보면 1년 새 7.8% 늘었는데,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명목 GDP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73.4%로, 1년 전보다



광장으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4.3%p 높아졌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월 기준 7.4로, 주의단계(8 이상 22 미만)에 근접했다. FSI는 2020년 4월(24.4)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가, 지난해 6월 0까지 내려왔지만 하반기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분기~2021년 3분기 대출금리가 평균 연 3%일 경우, 1분기 동안 가계대출이 34조1000억 원 불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3.5%로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폭이 26조3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

리가 연 4.0%까지 오르면 증가폭은 16조 원으로 급감한다.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지만, 취약계층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 이자장사로 168兆 벌었다

(최근 4년간)

평균 예대금리 차이 1.8%
작년 국민은행 26조 벌어
“가산금리 적절성 점검을”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인 예대금리차 수익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에 따르면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4년간 168조38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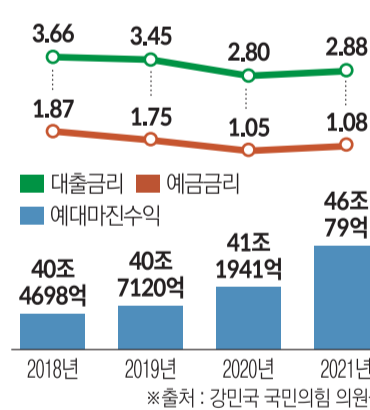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수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0조 4698억 원 △2019년 40조 7120억 원 △2020년 41조 1941억 원 △2021년 46조 79억 원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예대금리차가 1.80%로 지난 4년간 가장 컸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는 2018년에 1.79%를 기록한 뒤 2019년 1.70%로 떨어졌으나 2020년 1.75%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규 취급 대출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83%포인트(p)로 나타나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16%, 대출금리는 평균 2.99%를 각각 기록했다. 나머지 4개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KB국민은행

국내은행 예대금리차

(단위: 원, %) ※ ()는 예대금리차



(1.80%포인트), 하나은행(1.72%포인트), 우리은행(1.63%포인트), 농협은행(1.54%포인트) 순이었다.

지난 4년간 국내 은행들이 벌어들인 예대마진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6조142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농협(21조3957억 원), 기업은행(21조248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국민은행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4년간 168조 원 이상의 천문학 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사는 대통령 몫” 文 정면충돌尹 “당선인 존중은 상식”

인사·사법개혁 등 전방위 격돌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놓고 갈등을 표출한 양측이 24일 양자 회동 지연과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던 박근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포문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다”며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잡힐 만한 말을 나누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며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

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용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꺼내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 말까지 인사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즉각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들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부동산 때 때 계약에 빗대며 “당선인은 대금을 다 지

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인사권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박 장관의 간담회를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박준상 기자 jooon@

윤석열 시대-리셋 코리아
▶관련기사 4·5면

SK E&S, 美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

충전기 4600기 운영 기업 인수

SK E&S가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 E&S는 미국 전기차 충전 사업 선도 기업인 에버차지(EverCharge)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전기차 충전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에버차지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뿐만 아니라 충전소 운영까지 가능한 충전 솔루션 기업이

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약 46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SK E&S는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솔루션 글로벌 Top-tier’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SK E&S는 8일 미국 에너지솔루션 사업 투자를 위해 SK E&S 아메리카스에 4억 달러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SK E&S

는 이를 에버차지 인수와 에너지솔루션 분야의 추가 투자에 활용한다. 지난해 미국 그리드솔루션 기업인 ‘KCE’를 인수하고 에너지솔루션 기업인 ‘레브 리뉴어블스’에 투자한 SK E&S는 미국 내에서 ‘그리드-분산자원-모빌리티’ 분야를 연계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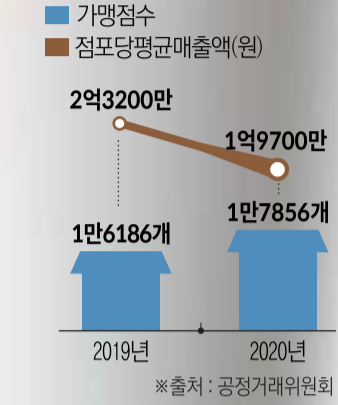
유정준 SK E&S 부회장은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은 SK E&S가 선연한 탄소 중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커피 프랜차이즈 출혈경쟁

취업 어려워 창업 했는데... “돈 맛이 쓰네”

커피 가맹점·평균 매출액



“아침마다 물 대신 커피로 수혈합니다.”

한국인들의 유별난 커피 사랑 덕에 ‘커피 사장님’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난 ‘젊은 사장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 매장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출혈 경쟁도 심화하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은 하락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전체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약 66% 늘어난 8999개다. 이 가운데 커피 업종 브랜드 수만 736개로, 전체 외식업종에서 직전 연도 대비 가장 큰 증가 폭(90%)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 역시 2019년 1만6186개에서 2020년 1만7856개로 10% 늘어나 외식 업종 가운데 커피가 가장 큰

커피홀릭 韓, 관련 창업도 급증 기술·자본부담 적어 젊은층 선호 브랜드 736개, 작년비 90% 증가 저가경쟁 붙으며 매출 15% 감소

폭으로 증가했다. 커피는 창업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이다. 타 외식업종과 비교해 초기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데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테이크아웃 시장 성행 등에 힘입어 소규모 창업도 가능하다. 커피 업종에서 지난해 가맹점 10개 미만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물 대신 커피를 즐겨 마시는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도 한몫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1조488억 원)했고, 커피 수입량 역시 2020년 대비 7.3% 늘어난 18만950톤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328잔으로, 1인당 하루 한 잔은 마시는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 조사).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젊은 사장님’의 약진도 커피 창업 시장의 성장세를 끌어올렸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중 20대 점주 비중이 2019년 8.8%에서 지난해 말 13.8%로 5%포인트(P) 늘었고, 백다방도 신규 창업자 중 2030세대 비중이 지난해 40%대를 차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이 창업으로 돌파구로 삼는 점이 요즘 창업 시장의 트렌드”라면서 “개인 창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시스템을 가진 프랜

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창업, 그중에서도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점포당 평균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커피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2억3200만 원이었던 데 비해 바이러스가 창궐한 2020년에는 1억9700만 원으로 15% 감소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이 타 업종 대비 높은 데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균 매출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과열에 따른 출혈 경쟁도 우려된다. 최근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확대하며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출혈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공정위 집계 기준 2020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19%로, 전년 대비 6.7%P로 늘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창용 “인플레이션·불황 확대 우려... 금융안정 치열하게 고민할 것”

한은 총재 후보지명 소감

엄중한 시기, 통화정책 지휘 책임감 금통위와 균형있는 정책 운용할 것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24일 후보 지명 소감문을 통해 “한국은행의 총재 후보자로 지명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성장,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을 어떻게 균

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지난 8년여간 IMF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예정된 국회 청문 절차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년 동안 한국은행을 잘 이끌어 주신 이주열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지

난 2년여간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그 이후 선제적이고 질서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IMF는 23일(현지시간) 이 국장의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한국 금융 수장으로 그의 성공을 기원했다.

IMF는 “이 국장은 2014년 IMF에 합류한 이래 뛰어난 리더로 활약했다”며 “일에 대한 예리한 지식과 열정을 보였고, 회원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아태국을 이끌었던 지난 8년간 아시아 회원국과 IMF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

다”며 “아시아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회원국들과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IMF는 “이 국장이 중요한 자리에 지명된 것을 축하하며, IMF에 대한 그의 탁월한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앞날에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2022년, 한전은 안전을 위해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작업 중에는 전기 공급을 잠시 멈추고,
다양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고,
모두를 살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한국전력을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전기 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전력공급을 잠시 멈추고 작업하는 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장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고품질의 안전한 전기의 공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전압이 예정된 경우, 고객님께 최소 7일 전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스마트)기 부착 등을 통해 일정과 준비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휴전 하루 전과 공사 완료 후에는 SMS 발송을 통해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 휴전 안내를 위해 고객님의 정확한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된 한전 송전탑의 안전을 위해 전선용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놓으십시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신고하십시오. 화재 발생 시 즉시 신고하십시오. 화재 발생 시 즉시 신고하십시오.

※ 추가문의 및 연락처 등: 한국전력 고객센터(☎122) 또는 사이버대응센터(☎1599-0000)



“벼랑 끝 자영업자·청년층, 대출 부실위험 커졌다”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장사해도 적자에 빚만 늘어난 자영업 가구가 7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적자를 빚으로 막기 위해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177조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 지원마저 끊길 경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당장 끌어올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적자를 벌일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이른바 ‘유동성 위험가구’가 27만 가구로 추정됐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대비 약 13조 원 늘어난 72조 원에 달했다. 업종 중에선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 및 교육업에서 유동성 위험가구 증가세가 뚜렷했다.

향후 1년간을 보면, 적자 가구 및 유동성 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정부 금융지원 정책 종료 여부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정부 지원이 일괄 종료될 경우, 적자가구 금융부채가 최대 5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 리스크가 여타 연령층보다 더 증대되고 있다. 각 연령별 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이 6.6%로 여타 연령층(5.8%)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도 여타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에는 5.8%까지 올랐다.

취약차주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도 2019년 말 10.6%에서 지난해 말 12.1%로 상승했다. 특히 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끝나면 이들의 부실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

자영업자 금융부채 177兆 부실 우려
2030 취약차주 비중 6.6%로 ‘최고’
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23조 ↓
DSR 강화엔 대출 줄지만 부작용도

“금리인상, 가계부채 억제에 효과적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 보완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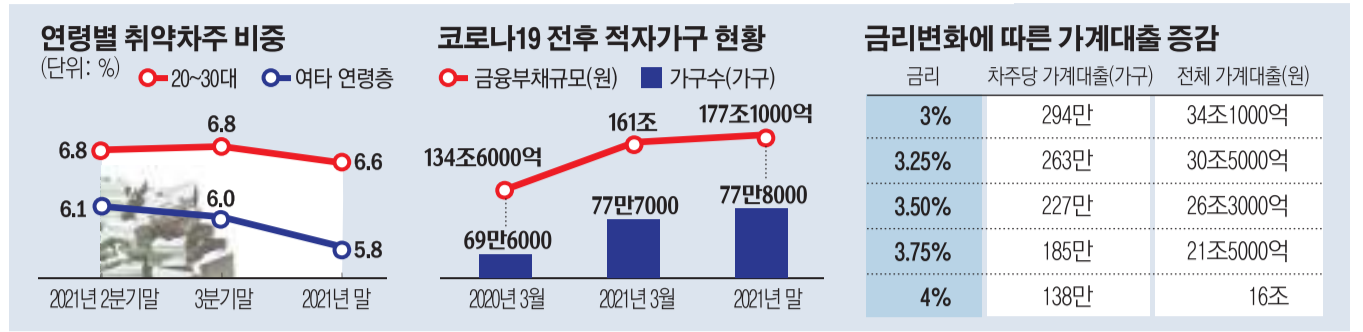
고가 잇따른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77조 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지난 2년 사이 43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가운데, 한은은 유동성 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0조 원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출 지원 연장으로 당장 큰 고비를 넘겼더라도 매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빚만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모든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된다 가정하면, 금융부채는 최대 5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장기화하면 잠재 부실이 이연 누적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잠재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이 전기 대비 23조4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그 근거다. 이런 대출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코로나19 이후 더 커졌다. 또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됐다. 대출금리 3% 수준일 때 1분기 동안 차



주당 가계대출이 평균 294만 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0.5%p, 1%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은 각각 227만 원, 138만 원으로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것이라 분석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2단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규제 적용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13.4% 줄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소득 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다.

강화된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DSR 규제가 한 차례 강화됐던 지난해 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가구당 평균자산 5억253만원 부동산 등 실물자산 14% 증가

통계청 ‘2021 한국 사회지표’

우리나라 가구는 한 해 평균 6000여만 원을 벌고, 5억 원대의 평균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8000만 원 후반대로 전년보다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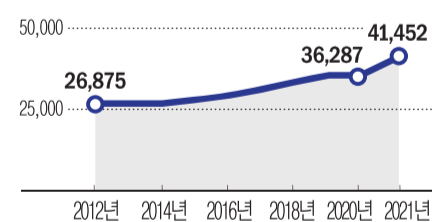
통계청은 24일 발간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가구 소득(2020년 기준)이 6125만 원으로, 전년보다 201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자산(2021년 3월 말 기준)은 5억253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저축·주식 등 금융 자산은 7.8%,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은 14.4%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 8801만 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4억1452만 원으로, 전년보다 14.2% 늘었다.

소득 분배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 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06 낮아졌고, 5분위 배율은 0.40배P 작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1.0%P 감소했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



* 출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22.2%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도 16.5%로 나타났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를 주로 혼자서 보내는 사람의 비중은 63.6%로, 전년보다 3.6%P 늘었다. 주로 친구와 보낸 사람의 비중은 6.5%로, 전년보다 2.7%P 줄었다.

2020년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에서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2.7%P 늘 13.0%였다.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0.7%P 준 2.9%, 성별 차별 경험률은 2.1%P 감소한 11.8%였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회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尹, 다른 이 말 듣지 말라” 당선인 측 “우린 임기말 인사 안할것”

위험 수위 넘는 강경 대치
靑 “회동 놓고 인사협상 안돼”
尹 측 “참모 지적 대단히 유감
회동, 덕담 나누는 자리 아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와 회동지연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한국은행 차기 총재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시면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시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장제원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도 서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동이 지연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돼서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아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유감을 표하며 반격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

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의 회동이 헛바퀴를 도는 책임을 윤 당선인 측근들에게 돌리며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로 비칠 있어서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을 비판하면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윤 당선인 측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회동 문제에 대해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사자인 윤 당선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과의)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며 만남의 여지는 남겨뒀다. 정일환 기자 whan@이단희 기자 nancho0907@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 대변인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사법으로 번진 文·尹 갈등...인수위 “박범계 발언에 분노”

“무례한 처사” 법무부 보고 안 받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에 경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조치다. 신구권력 갈등의 불똥이 사법개혁으로 튀는 것으로 정부 군기잡기의 성격도 담겨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 사무실에서 박 장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범계 “오늘은 침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인수위의 업무보고 유예 통보에 대해 “오늘은 침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같은 날 인수위 전막 기자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고이관 기자 photoeran@

인수위원들은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같은 날 인수위 전막 기자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고이관 기자 photoeran@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공격했다. 그는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 핵심이었다”며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 16명 중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검찰 보고받은 인수위...“대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공감”

인수위 “당선인이檢에 힘 실을까
오해·자만 말라고 각별히 강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들

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며, 당선인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뿐 아니라 검찰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대검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수위는 법안개정 전이라도 새정부에서 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을 해서라도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예산권 독립의 경우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며 인수위도 이 기조에

따라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예산권 독립 시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총장 국회 출석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체제 확립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尹 “여가부 폐지·산은 부산 이전 꼭 지킬 것”

사법공약 반대한 박범계 비판
“文정부, 檢개혁 안했다는 자평”
차기 총리 질문엔 “아직 일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가부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밝히는 질문에 “장관 기자회견을 쳐다볼 생각이 없다.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인 공약에 반대한 거라고 말하자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했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



尹, 이스라엘 대사 접견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통일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이기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보안사항이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 다 보고한다. 그럼 그걸 보고 다양하게 의

견을 피력한다. 지휘 개념이 아니고”라며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겠다.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강한 이행의지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그대로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 말을 했다는 얘기가”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약속했으니 그대로 지킬 것”이라며 “대형 은행들이 버티고 있어 줘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요시해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인수위에서 다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여론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많은 전직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했고 국민이 지지해줬다”며 “시도도 많이 해서 새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차기 총리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염두에 뒀다는 물음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총리 후보에 대해 생각할 상황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 총리 후보를, 내각을 생각할 상황은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인수위가 일을 시작하니까 저도 같이 좀 생각해볼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인수위 브리프

지방대 경쟁력 강화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방 거점 대학 경쟁력 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지방 대학을 살릴 방안을 검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 분야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지방 거점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로부터 협조를 받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에는 지방 거점대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역 중교와 대학을 연계, 지방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방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 순위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인수위 행보에 지방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방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추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입영대기 최소화 방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대상자가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해 휴·복학 등 학사일정과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입영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AI(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 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병역 진로 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인수위와 병무청은 맞춤형 입영 정보를 제공, 원스톱 입영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병무 행정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 검사와 병역면탈 단속과 예방, 국민 중심의 디지털 병무행정 구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례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TF는 심 팀장을 중심으로 (인수위)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TF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중부세) 폐지에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들은 주로 민간 전문가들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네이버·카카오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손본다

인수위, 플랫폼 규제 완화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위 현안보고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

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해 기간 규제 강화 흐름을 바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관련 발표를 했다. 이에 온플법이 계류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약한 만큼 온플법상 불필요한 규제 부분은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

에서 구체적으로 입법과제를 정리하면 그에 맞게 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플법의 중개수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규제 대상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업무보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 결과 보도자료에는 전속고발권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의무고발요청권과의 조화로 윤 운용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화한 데 따른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 새 원내대표 박홍근 “당 쇄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신(新)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 의원이 박광온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다. 2차 투표에서는 박광온 의원과 함께 상위 2위 안에 들었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1~3차(결선) 투표 모두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다. 172분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풀뿌리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정치인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박근혜 “제 못 이룬 꿈, 다른 이들의 몫”...尹 “찾아뵙겠다”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인사말 중 유리병 투척 男 연행尹 “대통령 취임식 당연히 초청”

작년 말 특별사면된 뒤 병원 치료에 전념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께 삼성서울병원을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짝막한 인사를 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물론 정치적 메시지는 일절 내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면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기원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한 남성이 유리병을 던져 경찰에 연행되는 등 작은 소

동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하는 뜻의 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서울 일일동 삼성서울병원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보내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건강이 회복돼서 사저에 가시게 돼서 아주 다행이고, 저도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뵙 계획 갖고 있다”며 “사저로 가겠다고 해도 건강이 어떠신지 살펴봐서, 괜찮으시다고 하면 찾아뵙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지 묻는 말에도 “원래 전직 대통령 다 모시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라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사전 일정 조율을 거쳐 내달 중 대구 사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일환 기자 whan@

“부품 수 줄이고 공용화”… 현대차, 공급망 안정화 총력

장재훈 사장, 주총서 ‘청사진’
“반도체 최적 배분·대체재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출고 지연 최소화”
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안 의결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반도체 최적 배분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동화 시대를 맞아 부품수를 줄이는 한편, 부품 공용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이 끝난 정의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들의 관심이 쏠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을 포함한 생산 전략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150여 명의 주주가 현장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렸다. 참석 주주수는 1억4287만여 주로 의결권 있는 주주의 71.6%였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주총 시작과 함께

진행된 인사말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 대책과 관련해 “최대 생산·판매를 통해 대기 고객을 최소화하겠다”며 “차량별 반도체 최적 배분, 대체 소재 개발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려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공급망 전략을 통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수를 축소하면서 공용화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효율성 확대를 위해 확보한 반도체를 최적의 생산 현장에 재분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마진이 높은 고급차와 SUV 생산에 반도체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장 사장 역시 “SUV와 고급차, 고급 트림 비중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런 전략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유럽 및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적 안착, 전용 전기차 판매 확대 및 충전·정비·모빌리티·금융 등 전기차 서비스 패키지 확대 전략도 소개했다.

품질 개선에 대해서는 “파워 트레인, 전동화 시스템 등 중요 부품의 품질은 선행 관리하고, 신뢰성 데이터 기반 신차 개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아울러 수소 사업과 관련, “상용 차종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인 국내와 유럽, 북미에서의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그린수소 등 수소 산업 핵심 역량 확보 및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 업계 첫 ‘NFT’ 발행 기아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NFT(대체 불가 토큰)’를 발행한다. 기아는 전기차 제품을 활용해 디자인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기아 EV NFT’ 6개 작품을 26일부터 4월 1일까지 NFT 유통 플랫폼 ‘클립 드롭스’에서 판매한다. 디자인센터는 ‘기아 EV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첫 전용 전기차 ‘EV6’, 2023년 출시 예정인 EV9의 콘셉트카 ‘콘셉트 EV9’, 올해 상반기 출시될 ‘니로 EV’를 디지털 아트로 제작했다. 사진제공 기아

〈LG그룹 회장〉 **“창립 75돌” 고객 외친 구광모** **“가치 있는 미래 함께 만들자”**

사내방송 통해 기념 메시지
LG전자 주총 신사업 정관 변경



구광모 LG그룹 회장 2022년 신년사 영상 캡처. 사진제공 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7일 창립 75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고객 가치 경영’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24일 사내 방송을 통해 방영된 75주년 기념 영상에서 “지난 75년, LG의 여정에는 늘 한결같은 고객과 우리 LG인들의 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LG의 더 가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LG전자는 ‘가치 있는 미래’ 비전의 일환으로 의료기기·NFT(대체불가 토큰)·블록체인 등을 정관에 반영하고 미래 신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앞세우며 ‘뉴 LG’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해온 구 회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LG트윈타워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사업목적에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슈리 파우더 등 기능성 소재 제작 및 판매업이 추가됐다.

앞서 LG전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 등과 손잡고

NF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 협업도 시작했다. 또 의료용 모니터·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공급과 탈모치료 의료기기인 ‘LG 프라엘 메디케어’,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 ‘LG 메디페인’을 선보이는 등 헬스케어 시장도 진출한 상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주총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객가치 경영을 전략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사업·기반기술 등의 미래 준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한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승인을 포함해 △제20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모두가 결됐다.

장효진 기자 js62@
 강태우 기자 burning@

지구를 살리는 놀라운 귀리

핀란드산 귀리로 만든 맛있는 귀리음료 어메이징 오트

Maeil

Amazing Oat

비린스타

Amazing Oat

Amazing Oat

Vegan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완료

어메이징 오트 더 알아보기

SKC 신임 사령탑에 박원철

“韓대표 ESG 소재 기업 도약”

박원철(사진) SKC 사장은 24일 “지금까진 SKC가 변화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4월부터 다양한 기회와 여러 가지 포맷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SKC는 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박원철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했다. SKC는 박원철 사장을 중심으로 ESG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사업구조를 확립하고, ‘도약과 수확(Leap & Reap)’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글로벌 컨설팅사 BCG(Boston Consulting Group)와 GS에너

지, 하나자산운용 등을 거쳐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글로벌 성장과 사업 발굴을 맡아온 신규사업 전문가다. SK그룹의 베트남 마산그룹 및 빈그룹 투자, 일본의 친환경 소재 기업 TBM사 투자 등 글로벌 투자를 주도했다. 올해 1월부터 SKC 사장을 맡고 있다.

박 사장은 앞으로의 SKC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묻는 말에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를 제시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성장 한계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SKC를 SK그룹의 대표 소재 회사이자 시장에서 소재 분야 톱 픽(Top Pick)으로 평가받는 기업, 나아가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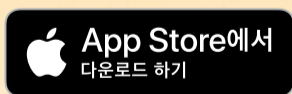
집요한 부동산자산관리 **내집내집**

이사 가고 싶은 그 집. 마음에만 담아둘 건가요?

시세변동알림에서
예상수익률, 세금계산까지
집요하게 입체분석!



집요한 부동산 정보
KB 부동산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으로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홈페이지(http://kbland.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200-4호(2021.11.25) 광고물 유효기한 2022.06.30까지

북한, ICBM 발사... 우리軍, 지하공미사일로 맞대응

文 “안보리 심각한 위협” 규탄 인수위 “모라토리엄 깬 것”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34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각 발사로 쏜 이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최고) 고도는 약 6200km 이상, 거리는 약 1080km로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하공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현무-II 지대지미사일 1발, 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 JDAM 2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

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인수위는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사망자 470명 최다... 5~11세 백신접종 예약 시작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 24일 신규확진 39만5598명 위중증환자 여전히 1000명대 치명률 낮아졌지만 환자 수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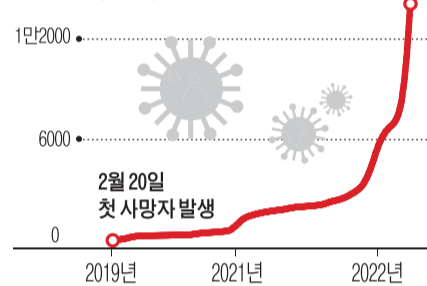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확진환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55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하루 새 470명 추가됐다. 17일(429명) 이후 일주일 만에 역대 최다치 경신이다. 단,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1081명으로 전날보다 3명 주는 데 그쳤다. 사망자로 빠진 위·중증환자만큼, 신규 위·중증환자가 추가됐다는 의미다.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질

코로나19 누적사망자

※ 전국 일일 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병에 걸려 입원하면 보통 열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사망하게 된다. 일정한 것은 아니고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지금 사망자가 늘어난 건 이전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일 확진자는 16일 40만 명을 넘어섰고, 17일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자연 집제로 62만 명대까지 치솟았다. 최근 위·중증환자, 사망자 증가세는 지난주 확진자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단, 최근 발생한 사망자를 모두 코로나19 증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긴 어렵다. 이 단장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른 기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역량은 위협수위 턱밑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증환자 병상은 64.6%(비수도권 71.6%), 준중증환자 병상은 68.8%(비수도권 75.4%)의 가동률을 기록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27만 9029명을 포함해 187만 3582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기본접종) 사전예약의 받는다. 관건은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접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접종 의향이 있는 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소아 치명률은 어른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들은 영향이 무척 크고 중증으로 빠질 수 있다”며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접종 이득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만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일인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간호사가 유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수입 명차 리스·재산 편법 증여 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나섰다

체납액 총 3361억 달해 국세청 “방조자도 고발”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 가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고,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유형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능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이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 5564억 원으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이 지원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팬데믹 장기화? ... 美·유럽서 스텔스 오미크론 기승

英, 하루 신규 확진 10만여명 美, 2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2483명 발생해 1주일 전 9만 1345명에서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 2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차츰 줄어들었다. 올해 1월 말 3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 수는 3월 중순에 이어 이날 또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영국 보건부는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배경으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과 느슨해진 제한 조치를 지적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1%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팬데믹이 정점에 달한 1월 초 100만 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최근 7일 평균은 3만 1000명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점 대비 96% 감소한 수준

이다. 입원환자 수도 정점에서 90%가량 줄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는 2주 전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달 초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에 불과했던 스텔스 오미크론 비중은 지난주 51%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 늘더라도 과거 다른 변이 출현에 따른 대유행 수준의 폭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또다른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홍남기, 美주도 ‘IPEF’ 참여 검토

정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세부 입장을 다음 달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IPEF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IPEF의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디지털통화>

“은행 수수료 바가지 쓰느니...” 중남미 CBDC 열풍

해외 노동자, 급여 송금이 너무 비싸 바하마, 세계 첫 디지털화폐 도입 브라질·멕시코, 잇달아 출시 예정

중남미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향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고액 수수료를 챙기는 시중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금융거래가 줄어들자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CBDC를 대안책으로 꺼내 들기 시작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바하마는 2020년 10월 세계 최초 CBDC인 '샌드달러'를 출시했고, 카리브해 8개국으로 구성된 동카리브해중앙은행(ECCB)은 지난해 3월 'DCash'라는 CBDC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자메이카가 이달 중 'Jam-

바하마	2020년 10월 세계 최초 CBDC '샌드달러' 출시
동카리브해중앙은행	2021년 3월 'Dcash' 출시
자메이카	3월 중 'Jam-Dex' 출시 예정, 10만명 인센티브 제공
브라질	연내 '디지털레알' 시범 운용, 2024년 본격 상용화
멕시코	2024년까지 CBDC 도입 계획



※ 출처: 니혼게이지이신문, 블룸버그

Dex'라는 CBDC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CBDC를 사용하는 첫 10만 명에게 각각 16달러(약 2만 원)를 지원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남미 경제 규모 1, 2위인 브라질과 멕시코도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연내 '디지털레알' 시범 운용을 목표로 삼았다. 본격적인 CBDC 유통은 2024년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최근 2024년까지

CBD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다르게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CBDC 도입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높은 수수료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있다. 중남미 시중은행은 다른 국가 은행보다 송금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한다. 중남미 빈곤층은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보내오는 자금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금 수수료가 높다 보니 기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크다.

게다가 이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힘들다. 자메이카에선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 비율이 전체의 20% 가까이 되며 멕시코의 경우 성인 과반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수요는 줄고 통제하기 어려운 민간 가상자산 활용이 높아지자 당국은 CBDC라는 대안을 내놓게 됐다. 나탈리 헤인즈 자메이카 중앙은행 부총재는 "빈곤층의 금융 접근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CBDC 수수료를 기존 은행보다 낮게 책정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CBDC는 은행 업무와 달리 스마트폰 있으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로 인해 CBDC를 보완재

수준으로 여기는 선진국과 달리 중남미 국가들은 CBDC가 미래에 대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캄보스 네토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통화는 단순히 환전을 위해 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물리적 통화를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CBDC는 현금이나 민간 가상화폐와 공존하는 것이 대체재는 아니다"라던 지난해 발언과 사뭇 다르다.

적극적인 정부와 달리 핀테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건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시스템 도입에 집중할 나머지 CBDC에 관한 교육에 소홀히 하면서 정착 시스템이 출시되기도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바하마의 경우 CBDC를 출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고대명 기자 koda00@

“中 잡으려다 인플레이 毒 될라” 바이든, 對中 관세면제 부활

인플레이션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품목 549개를 검토한 가운데 352개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에는 자전거 부품, 전기모터, 기계, 화학제품, 해산물, 섬유와 소비재 등이 포함된다. USTR은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면서 "이번 조치가 소기업과 고용시장, 제조 생산량과 주요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

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이때 부과된 관세만 연간 3500억 달러(약 427조 원)에 달했다. 관세 철폐에 미국 기업들이 5만3000건이 넘는 관세 완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후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이 미국과 약속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2020년 말 만료됐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조치는 중국 달래기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우크라 침공 한 달... 승자는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개월째를 맞았다. 러시아는 단기간에 우크라이나에 압승을 거둔다는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계획은 빗나갔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에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유엔은 지금까지 민간인이 최소 977명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한 주택가에 2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키이우/로이터연합뉴스

맛볼 놓은 푸틴 “유럽 가스비, 루블로 받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각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가스 공급 결제 수단을 루블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에 일주일 안으로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러시아가 지목한 비우호적 국가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영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천연가스와 원유 등 상품 거래는 대부분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 EU 국가들은 그동안 주로 유로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했다.

러시아가 결제 수단으로 자국 통화만을 내세우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강력한 대러 제재에 대한

유럽 천연가스 40% 리 의존 서방 제재에 환율방어 나서 ‘에너지 독립’ 역효과 날 수도

맞벌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외환보유액의 절반가량이 동결된 상태로, 이 때문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방 제재로 곤두박질친 루블화 환율방어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가 결제 대금으로 루블화만 받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는 업체들은 달러나 유로 대신 루블화를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루블화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전쟁 전 달러당 70루블대에서 거래되던 루블화는 이달 초 달러당 140루블 이상을 기록, 그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달러당 100루블 안팎 수준으로 다소 가치를 회복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외화는 현재 매우 신뢰할 수 없는 통화

가 됐다”면서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유 수출 대금도 루블화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블 결제 요구가 다른 주요 수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나 유로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거래 당사국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푸틴 대통령 발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다.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TTF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한때 19% 치솟았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5.3% 뚝 떨어졌다. 독일과 폴란드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루블화 결제 요구는 계약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라이스태드에너지의 비즈니스수 로마노 수석 애널리스트는 “루블 결제 요구를 주장하면 나아가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것에 속도를 낼 여지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달 여행’ 낙방한 베이조스, 재수 기회 얻는다

나사 “스페이스X 외 추가 입찰 계획”

제프 베이조스(사진) 아마존 창업자가 접어 뒀던 달 여행 꿈을 다시 꾸게 됐다. 지난해 달 착륙 우주선 입찰자 선정에서 베이조스의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을 탈락시킨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입찰 대상을 한 곳 더 늘리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와 달 착륙 우주선 계약을 맺었던 나사는 최근 스페이스X 외에 다른 회사 1곳을 추가로 입찰하기로 했다.

앞서 나사는 지난해 4월 스페이스X와 단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제시한 입찰가가 59억9000만 달러(약 7조3000억 원)로 스페이스X 입찰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사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베이조스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나사를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나사는 업계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달 착륙선 입찰을 위

한 두 번째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스페이스X 때와 유사한 자금 규모의 계약을 약속했으며, 내년 초 최종 입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우리 경쟁을 약속했고, 이 사업은 고립된 임무가 아니다”라며 “두 번째로 낙찰된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스페이스X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블루오리진 측은 환영했다. 블루오리진은 성명을 내고 “나사가 두 번째 달 착륙 입찰자를 공모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블루오리진은 경쟁할 준비가 돼 있고 성공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 블루오리진과 함께 낙마했던 다이네틱스를 비롯해 다른 우주탐사 기업들도 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고대명 기자 koda00@



코로나 피해 中企 지원 ‘은행기금’ 생기나

작년 이자이익 증가 힘입어
은행 당기순이익 40% 급증
대출 연장 9월 종료 앞두고
금융당국 사회적 책임 강조

금융당국이 코로나 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낸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기금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기금 마련과 관련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작년 한해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16조9000억 원(금감원 잠정치)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20년(12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

년(13조9000억 원)과 비교해도 3조 원 증가했다. 실적 호조를 이끈 이자이익은 46조 원으로 2020년(41조2000억 원)에 비해 5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익 창출이 개인 대출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금마련을 통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재기 지원이나 업종 전환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재정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다른 차주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는 자영업 내에 남아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과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을 식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 프로그램짜는 것은 과거 휴면예금을 활용하자고 했던 거와 아이디어는 비슷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식별이 어려운 단계에서 기금 마련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기업들을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교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지원금 얘기도 나오는데 차주 입장에서 과거 2년간 대출 상환 유예, 내지 못한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 차주들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차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OECD 중기금융 공동의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선임

中企 녹색전환 금융모델 연구

IBK기업은행은 윤종원 행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고 24일 밝혔다.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은 OECD, 영국, 캐나다의 중소기업금융 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공동연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중기금융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에는 영국 BBB(British Business Bank) 추천 정부인사가 초대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윤 행장은 캐나다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주요 의사결

정과 플랫폼 운영체제 확립에 참여한다.

연구결과는 컨퍼런스, 운영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게 되며 4월 21일에 첫 번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 행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OECD 비대면 포럼에서 아시아 은행 대표로 참여해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과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ESG건설팀을 신설했으며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연계대출(SLL)’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신인 우리은행장〉

이원덕 “IT기업과 경쟁… 디지털-플랫폼 역량 집중”

취임식서 고객중심경영 선포
‘고객·시장·직원’ 키워드 강조



이번 취임식은 이 행장의 뜻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행장은 디지털과 플랫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경계의 붕괴이며, 보호 산업이었던 금융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라며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거대 플랫폼과 거대 IT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플랫폼에 우리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행장은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웠다. 그는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가

“위대한 은행은 얼마나 많은 고객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우리은행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원덕(사진) 신인 우리은행 은행장이 고객 중심의 혁신 경영을 선포했다.

이 행장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날 거친 역사의 파고를 이겨내고 지금처럼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고객님께서 보내 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3대 경영 키워드로 ‘고객·시장·직원’을 꼽았다.

진 ‘최고의 희망’”이라며 “저와 함께 우리은행의 여정을 개척하고 승리하고 이겨내 위대한 은행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 행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곧바로 서울 지역 오픈 거래처 방문을 시작으로 방문고객 수가 전국 최상위 지점인 수유동금융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우리은행은 ‘고객 중심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자 본부의 지원조직을 축소하고 영업부문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비서실 폐지 등 은행장 지원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총괄 및 외환 등 현장영업 담당 조직은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퍼펙트스톱 우려 보험사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CEO 간담회’



금리인상에 채권평가손실 늘어
IFRS17 도입 리스크 관리 당부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파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초청으로 진행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려되었던 퍼펙트스톱의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인축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러·우크라이나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며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파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내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자본확충과 합

계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검사체계 개편에 관해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감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하에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카뱅, 중신용·전월세대출 최저금리 인하

카카오뱅크는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p), 0.20%p 인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신용 대출의 최저금리는

3%대로,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2%대로 떨어졌다. 각각 중신용 대출은 4.067%에서 3.578%, 일반 전·월세대출은 3.082%에서 2.882%로 낮아졌다.

중신용 대출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소득자 대상 대출로 최대 대출한도 1억 원이다.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2억2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SC제일銀, 일북리저축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1억 이상 고객에 최고 年1.3%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일북리저축예금(MMDA)에 1억 원 이상(최대 20억 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신규입금부터 가장 60일간 매일 잔액에 대해 최고 연 1.3%(이하 연 기준, 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북리저축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객 자산가들이 돈을 맡기는 파킹통장이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일북리저축예금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규 가입일부터 가장 60일까지 특별금리를 제공해준다. 이벤트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별 가입 한도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이며 총 모집 한도 2000억 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단, 가입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되며, 특별금리 제공 기간에 예금잔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특별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일북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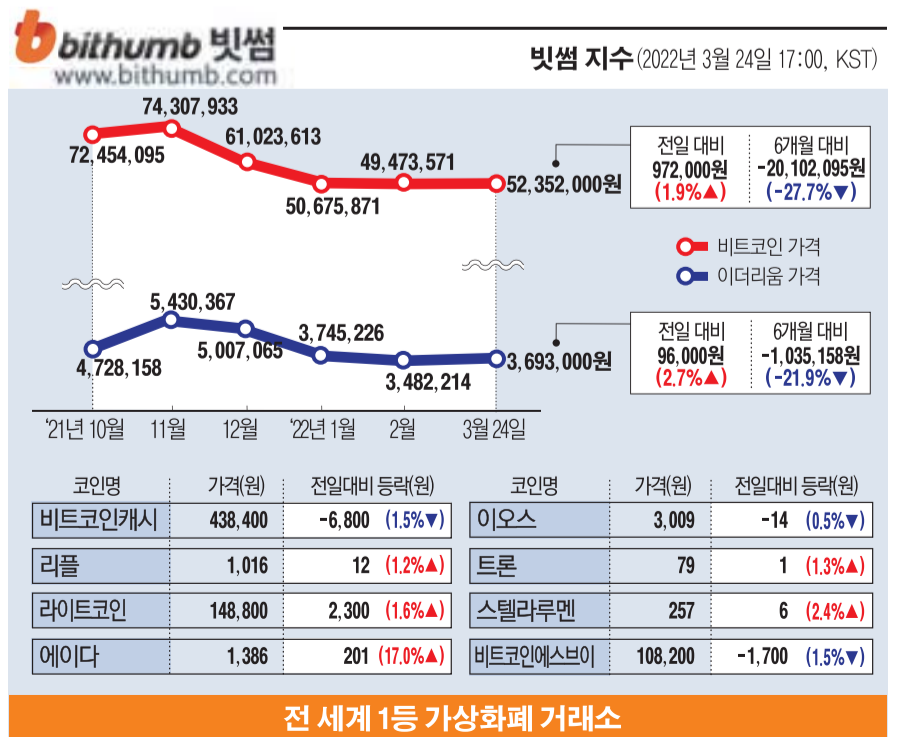
일북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



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면 0.4%,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0.3%,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0.2%, 3000만 원 미만이면 0.1%이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SC제일은행은 이와 별도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만기이자지급식)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2.2%의 금리를 제공한다. 첫 거래 고객이 입출금통장에 30만 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상태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1억 원 이상 가입하는 경우 2.2%, 1억 원 미만 가입하는 경우 2.15%의 금리를 각각 한도 제한 없이 적용해준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Do the 'Green' Thing

국내 금융업계 최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평가
7년 연속 리더십 A 획득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전략 발표

국내 최초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 가입

국내 최초
글로벌 탄소중립 은행연합
창립멤버

Shinhan



아시아 민간금융그룹 최초
2021 유엔기후변화총회 탄소중립 전략발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친환경 금융의 기준을 전파하고
친환경 금융을 이끌어 갑니다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내일을 위한
신한의 생각(ESG)



외국인, 올들어 8.2兆 ‘셀코리아’… 실적株는 담았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행렬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8조 원, 이달에만 5조 원 가량을 쏟아내면서 외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예정된 간축임에도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셀코리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알파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외인은 ‘팔자’ 기조에도 LG이노텍, 삼성엔지니어링 등 종목을 대거 장바구니에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외인의 매도세와 반대로 오히려 성과가 좋았던 실적 개선주에도 눈길이 쏠린다.

◇외인 증시 비중, 코넥스 출범 후 최저…시총 상위 종목 대거 이탈 =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8조2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매도세는 최근 들어 더 거세다. 3월 들어서만 5조123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3월 총 15거래일 중 10거래일 간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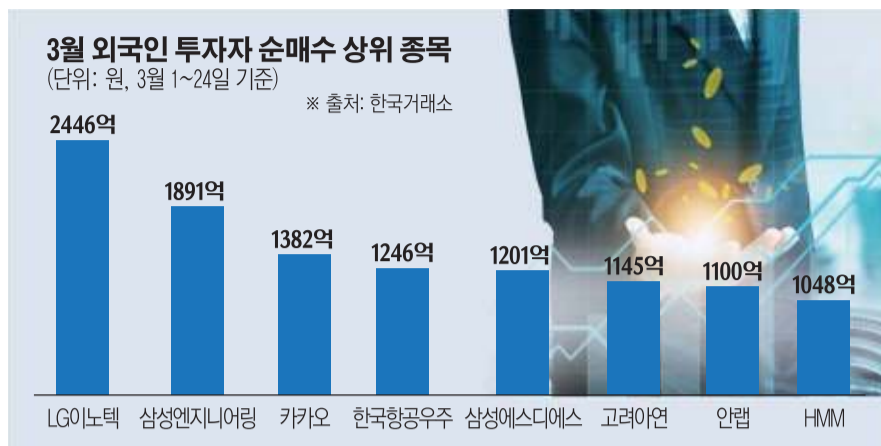
외인의 장바구니에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탈락했다. 3월 들어 코스피 시총 1

美 금리인상·강달러 부담에 삼성전자·LG엔솔·현대차 등 3월에만 5兆 팔자 ‘비중 최저’

LG이노·삼성ENG·HMM 펀더멘털 상위 종목은 매수원자갯값 상관관계 따져야

위 삼성전자와 6위 삼성전자를 각각 1조6900억 원, 4453억 원 순매도 했다. 2위 LG에너지솔루션도 7849억 원어치를 팔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발 공급망 불안 리스크가 커진 현대차(-3073억 원), 기아(-2302억 원)도 매도에 나섰고 이외에 삼성SDI(-3547억 원), 셀트리온(-3153억 원)도 ‘팔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가 외인 탈출의 첫 번째 요인으로 지목된다. 달러강세, 원화약세도 외인 수급의 부담 요소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낮은 점도 약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50조7000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3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인, 실적주 산다 =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인은 국내 펀더멘털 영역에 대한 부담을 반영, 여전히 매도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며 “외인의 매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알파 전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선은 자연스레 외인이 국내 증시 ‘발빠기’에도 불구하고 대거 장바구니 담은 종목들로 쏠린다. 외인은 이달 들어 LG이노텍(2286억 원)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최근 애플이 지구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60%로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카메라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의 카메라모듈 공급 점유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지고 있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내년부터 애플을 비롯한 자율주행차 부품 출하 확대도 예상된다.

외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1868억 원),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는 해운 대표주 HMM(1005억 원)도 대거 담았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종속사들의

상장이 예상되는 카키오(1409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환경·보건·안전시스템(EHS) 수요가 늘어난 삼성에스디에스(1354억 원) 등도 순매수했다.

차기 국무총리설이 나오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 안랩(1270억 원), 우크라이나 사태의 확대로 간접 수혜가 예상되는 방산주 한국항공우주(1259억 원)도 눈에 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및 고환율에 수혜를 입은 고려아연(1159억 원)도 뒤를 이었다.

외인의 매도세가 거세던 시기에 성과가 돋보인 실적 개선주(이익모멘텀 팩터)에 주목하는 분석도 나온다. 펀더멘털 기준 상위 종목일 수록 외인의 매도세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6년간 외인 누적 순매수금액 줄수록 실적팩터는 오히려 늘어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 여파에 자유로운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순익 변화율이 높으면서도 최근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도 상관관계가 적은 종목으로는 대한해운, 가스공사, GS, HMM 등이 꼽힌다. 정성욱 기자 sajjoku@

LG이노텍이 애플의 아이폰 흥행 기대감 속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폰이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LG이노텍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LG이노텍은 전일 대비 1.88% 오른 40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고 하루 만에 증가기준 40만 원대를 회복했다.

LG이노텍은 지난 21일 40만 원을 넘어 서며 1월 14일 고가(39만8500원)를 경신했다. 이어 22일에는 고가 41만3500원, 23일에는 41만4500원을 터치하며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일 증가 39만8500원을 기록하며 주춤하는가 싶던 주가는 다음 날 저가 39만

아이폰 흥행 기대감에…LG이노텍, 신고가 행진

4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에 성공해 다시 40만 원 선을 재돌파했다.

LG이노텍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흥행 기대감 속에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애플은 올 하반기 아이폰14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증권업계는 이 모델이 전작을 넘어선 흥행을 기록하며 올해 애플이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폰14에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성능이 전작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며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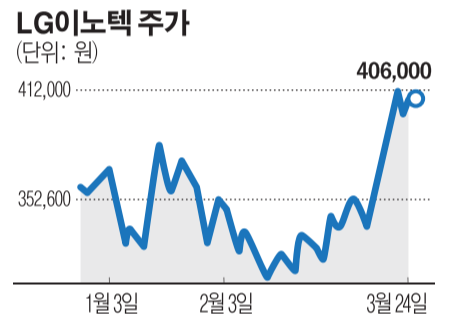
카메라모듈 공급 주문 20% ↑ 연초대비 목표주가 22% 올라

부품업체의 초기 주문량이 아이폰13과 비교할 때 약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LG이노텍 평균 목표주가는 44만3389원으로 연초 36만2333원보다 22% 상승했다.

LG이노텍은 올해 매출 16조3900억 원,

영업이익 1조430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실적에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며, 1분기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아이폰13과 아이폰SE 수요가 양호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3월 아이폰 생산이 다른 공장으로도 재배치되며 LG이노텍 주문량 감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



라고 설명했다. 한재훈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아이폰 판매량 확대와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에 LG이노텍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6연임’

미래에셋증권 제53기 정기주총 이사회 의장에 정용선 사외이사 보통주 300원 등 배당성향 확정



과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300원과 우선주 330원, 2우선주 3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8월에는 향후 3년 동안 주주환원성향을 조정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초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업계 최초 연간 당기순이익 1조 원 돌파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한 최현만 회장의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했다.

이만열 사장은 최현만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에 선임 됐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고객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주주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그동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성장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해 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 및 투자자분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家, 삼전 지분 1.4兆 블록딜…“상속세 재원”

4월부터 12兆 분할 납부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 현금 1조37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24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1994만1860주를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딜을 통해 처분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증가(7만500원)에서 2.4% 하락된 6만8800원으로 결정됐다. 처분 물량은 삼성전자 지분 0.33% 수준으로 1조3720억 원에 이른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잇따라 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분할 납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 주식 301만8860주(3.9%)를 블록딜로 처분해 1900여억 원을 확보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삼성생명 주식 약 346만주를 처분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분 추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0.99% 내린 6만9800원에 마감했다. 삼성SDS도 전날보다 1.87% 떨어진 13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한기평 “우크라 사태에 시멘트·철강·조선 업황 악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시멘트, 철강, 조선 등의 업황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24일 러시아 사태, 원자재가격상승, 금리인상, 코로나의 엔데믹화, 재정부 출범 등 최근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업종별 신용등급 이슈를 발표했다.

한기평은 러시아 사태로 시멘트, 철강, 조선, 자동차·부품, 음식료, 정유, 화학 업

종의 사업환경 악화를 예상했다.

송태준 실장은 “1분기 유가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 전망. 2022년 평균 유가는 100달러로 전망된다”며 “불가산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 유지 전망되어 기업들의 비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수요 회복의 제약으로 판가 전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가격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건

설, 시멘트, 철강, 조선, 자동차·부품, 해운, 소매유통, 음식료, 제지, 화학, 민자발전-LNG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 실장은 “현재 주요 국가의 방역 및 감염 상황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엔데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태준 실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원전 친화적 정책을 예상한다”며 건설, 시멘트, 게임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SK케미칼, R&D 조직 대수술... 친환경 사업 속도 낸다

화학산하조직 2체제로 개편
바이오 원료·화학적 재활용 등
핵심사업 중심 연구·투자 재조정



SK케미칼의 '에코트리아 CR'를 활용해 만든 화장품 용기 모습. 사진제공 SK케미칼

SK케미칼이 미래 먹거리로 친환경 소재 사업을 꼽고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SK케미칼은 최근 화학제품의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화학연구소 산하 조직을 기존 △기반기술연구소 △친환경소재연구소 △고기능소재연구소 등 3체제에서 고기능소재연구소 2체제로 개편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PPS(폴리페닐설파이드) 사업 매각으로 조직을 현재 핵심사업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명했다. PPS란 내열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이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성과 내화학약품성, 난연성 등이 우수하다. 자동차나 전기·전자 분야에서 제품의 경량화를 위해 주로 쓰인다.

SK케미칼은 2013년 일본 테ijin과의 합작사 이니츠를 세우면서 PPS 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니츠는 적자의 늪에 빠졌고 2019년 이니츠를 사업부로 흡수한

뒤에도 실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말 HDC현대EP에 PPS 사업 관련 기계 장치와 울산시 남구 황성동 일대 토지 일부 등을 385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SK케미칼은 앞으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 원료 소재 등 친환경 사업에 R&D와 투자를 집중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케미칼 리사이클) 기술을 적용한 코폴리에스터와 페트(PET)를 양산 중이다. 화학적 재활용이란 수거된 제품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화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코폴리에스터의 경우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했다. '에코트리아(ECOTRIA) CR'라고 이름 붙인 이 제품은 우선 화장품 용기에 적용

중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SK케미칼의 친환경 코폴리에스터 사업은 매출 1848억 원,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했다.

SK케미칼은 지속 가능 패키징 솔루션(PPS) 소재 판매 비율을 2025년 50%, 2030년 100%까지 키울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페트(PET) '스카이펫(SKYPET) CR'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 2025년까지 스카이펫 CR 사업 규모를 2000억 원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옥수수를 발효해 만든 친환경 소재인 PO3G도 본격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40%까지 적고 생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낸드 키우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양날개' 펼치나

인텔 인수로 점유율 확대 전망
10월 청주 M15 2단계 마무리
D램과 지속가능 사업 시너지

SK하이닉스가 D램과 함께 낸드 플래시 사업을 확장하며 '메모리 반도체 사업' 양날개 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0월까지 청주에 있는 M15 팹(공장)에 2단계(Phase2) 작업을 마무리한다. M15 팹의 잔여 공간에 장비를 채우는 작업이 끝나면 낸드 플래시 생산 능력(캐파)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M15 팹의

2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낸드 생산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낸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42조9978억 원 가운데 D램은 30조5997억 원, 낸드는 10조5294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낸드는 전년 대비 3조582억 원 늘어났으며 전체 매출 대비 비중도 약 1% 증가한 24.48%를 기록했다.

낸드 부문의 매출액과 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D램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은 27.4%지만 낸드는 14.4%였다.

업계에서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SK하이닉스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낸드 비즈니스가 실적에 반영돼 올해 낸드 출하량은 65% 증가, 영업이익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SK하이닉스의 취약점이었던 낸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사업 성장을 위해 10조 원을 투입하며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했다. 지난해 12월 인수 1단계 절차 완료했으며 2차 종결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인수 계약 체결 후 SSD 사업 운영을 위한 미국 내 자회사 '솔리디

엄'(Solidigm) 또한 설립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낸드 시장 3위에서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 낸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기업용 SSD 시장의 경우 현재 세계 2위인 인텔과 합쳐지면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D램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업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했다"며 "낸드 사업 확대도 (D램에) 편중됐던 사업 구조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양날개'가 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최정우(가운데) 포스코그룹 회장이 23일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염수리튬 1단계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포스코그룹

포스코, 아르헨 리튬공장 첫삽 년 최대 전기차 240만대분 생산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상용화 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4일 아르헨티나 살타주 4000m 고지대에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기반의 염수 리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권 인수에서부터 탐사·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아르헨티나에서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은 포스코그룹이 최초다.

이날 착공한 염수 리튬 공장은 수산화리튬 연산 2만5000톤 규모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투자비는 인프라 투자 및 운전자금 등을 포함해 8억 3000만 달러(약 9500억 원) 수준이다.

리튬 공장 건설 및 운영, 자금조달 등은 포스코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수행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착공하는 리튬 사업에 연이어 올해 2단계 연산 2만5000톤 추가 투자를 통해 2024년 말부터 양산 규모를 5만 톤까지 증산할 계획이다. 2028년 최대 10만 톤 규모까지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착공으로 포스코그룹이 생산하게 되는 수산화리튬 연산 2만5000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량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대한다면 전기차 약 24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은 포스코그룹이 지난 수년간 준비해 온 리튬 사업이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이번 염수 리튬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스타보 사엔츠 살타주 주지사, 라울 하릴 카타마르카주 주지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원료에서부터 양-음극재까지 이차전지소재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그룹과 리튬 사업을 함께하게 돼 기쁘며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burning@

금호석화 '조카의 난' 2차전... 소액주주 표심 촉각

배당금·사외이사 선임 표 대결
외국인·국민연금 등 선택 관전



박찬구 회장 박철완 전 상무

'제2차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가 오늘 열린다. 금호석유화학과 박철완 전 상무의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주주들의 표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 부딪힐 주요 안건은 배당안과 사외이사 선임 두 가지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배당금을 보통주 주당 1만 원, 우선주 주당 1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박 전 상무는 배당 안건으로

보통주 주당 1만4900원, 우선주 주당 1만4950원을 제안했다.

또 금호석유화학은 박상수·박영우 사외이사 선임, 박 전 상무는 이성용·함상문 사외이사 선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지문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ISS와 한국ESG연구소, 글라루이스는 금호석유화학의 배당안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며 힘을 실었다. 반면 ESG지문기관 서스틴베스트와 노르웨이 투자관리청,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박 전 상무 측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세계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사 측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철

완 전 상무 측의 지분을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소액 주주 표심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주 비중은 소액 주주 21%, 외국인 투자자 20%, 국민연금공단이 8%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표심이 회사에 쏠릴 것을 고려해 박 전 상무는 고배당안으로 소액 주주 결집을 유도하는 중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항배도 지켜볼 만하다. 현재로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배당액도 증가한 만큼 회사 친화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국민연금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주요 글로벌 의결권 지문사들도 금호석유화학에 찬성을 권고한 만큼 사측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쉐보레 타호' 韓 초대형 SUV시장 정복 시동

차체 길이 5352mm·높이 1925mm
성인 7명 장거리 운행 문제 없어

쉐보레가 올해 풀사이즈 SUV 타호(TAHOE·사진)를 앞세워 국내 초대형 SUV 시장 확대에 나선다.

타호는 1994년 데뷔한 초대형 SUV로 국내 선보인 모델은 5세대다. 길이 5352mm, 너비 2057mm, 높이 1925mm라는 압도적인 체구가 특징. 플랫폼은 캐딜락 에스칼라드(ESCALADE)와 동일하다. 국내 출시하는 처음이지만 할리우드 영화나

VIP 경호용 밴 등으로 워낙 자주 노출된 덕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하다.

타호는 미니밴 부럽지 않은 넓은 실내공간을 갖췄다. 3열까지 넉넉해 성인 남성 7명이 탑승해도 장거리 운행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미국에서 타호는 LS부터 하이컨트리까지 총 6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내에는 최고급형인 하이컨트리 단일 모델로 출시한다. 각 트림은 고유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통해 인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중한 체구에 걸맞은 V8 6.2l 직분



사 자연흡기 엔진을 품었다. 여기에 10단 자동변속기와 조화를 이룬다. 최고출력은 426마력, 최대토크는 63.6kg·m를 뽐낸다.

네바퀴굴림 시스템은 기본. 저속이거나 항속 등 엔진이 저부하 상황일 때는 실린더를 일부만 사용해 연비를 높이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Dynamic

Fuel Management)'도 넣었다. 업계 최초로 17개 모드를 갖춰 효율 향상에 최적화했다.

안전을 위한 옵션도 풍부하게 갖췄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센터 에어백을 비롯한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갔다. 전방에 보행자를 감시하는 시스템과 충돌이 예상되면 비상 제동하는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언제나 차 주위를 살핀다.

현재 타호는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 사전 계약을 진행 중이다. 쉐보레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 선보인 '쉐보레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신형 타호에도 적용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벤처기업 가치 '276兆'... 미래 유니콘 200곳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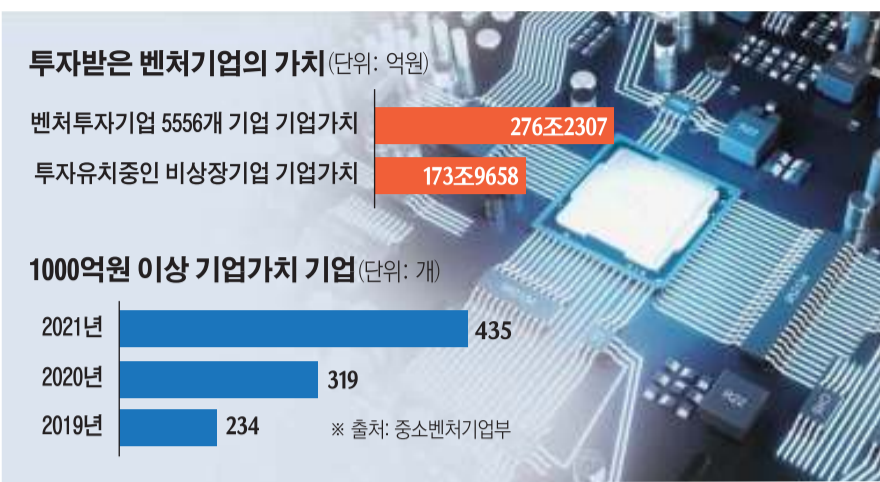
7년간 투자 받은 5556곳 분석
창업 후 '1000억 달성' 9년 걸려
평균 기업가치 2배 늘어 807억
게임·블록체인, 투자 가치 높아

지난 7년(2015~2021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5556개사의 전체 기업가치가 2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비상장기업의 가치는 시총 2위 대기업 규모를 높였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회사 중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될 가능성을 지닌 곳은 200개를 넘었다. 다만 벤처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편중은 심각했다.

중기부는 최근 7년 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사 중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기업가치가 276조2307억 원이라고 24일 밝혔다.

◇SK하이닉스(벤처기업가치(삼성전자



이 중 상장 혹은 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은 4453개사였다. 기업가치는 총 173조 9658억 원이다.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446조2970억 원)의 약 39.0%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조4000억 원)보다는 14배 컸다. 코스피 상장 기업에선 시총 1위 삼성전자(시총 467조4000억 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조4000억 원)보다 1.8배 컸다.

투자를 유지한 벤처기업 5500여 곳 중 투자 당시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보면 △1000억 원 이상 기업 435개사(7.8%) △100억 이상~1000억 원 미만 기업 2532개사(45.6%) △100억 원 미만 기업은 2589개사(46.6%)다.

그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매년 300억~400억 원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약 807억 원으로 전년(약 423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커졌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고, 투자를 유지한 기업들의 가치가 덩달아 뛰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력이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는 더 높았다. 창업 후기업이 1010억 원, 중기업 519억 원, 초기기업 307억 원 순이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후기기업의 투자는 통상적으로 후속, 연속투자인데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게임, 블록체인, 스마트 비즈니스·금융 분야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았다. 게임 업종 기업들이 4078억 원으로 평균 가치가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938억 원, ICT서비스 81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가치 1000억 이상 벤처 243곳= 지난해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 435개사로 전년 대비 대비 116개사 늘었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이 회수된 기업,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

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다. 특히 기업가치가 이미 1조 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2015년 31개에 불과했지만 6년 만에 8배나 늘어났다.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전체 벤처를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의료 업종이 133개사(30.6%)로 가장 많다. ICT서비스 104개사(23.9%), 유통·서비스 73개사(16.8%) 순이다. 지난해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업종에 벤처투자가 집중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중 80%는 수도권에 집중돼 극심한 편중 현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53.3%·232개사) 쏠림이 극심했다. 지방에선 대전(6.9%·30개사)에 가장 많이 소재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돼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넥슨게임즈 출범 임박... 신작 기대되네

초대 대표에 박용현...글로벌 조준

넥슨의 개발 자회사인 넥슨게임즈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넷게임즈와 넥슨지티를 합병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넥슨게임즈는 넥슨이 서비스하는 주력 게임 개발을 담당하는 메인기지가 될 전망이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게임즈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넥슨게임즈'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다룬다 넷게임즈와 넥슨지티는 1대 1.0423647로 합병하며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인 넷게임즈다. 사명 변경 안이 통과되면 오는 31일 정식으로 넥슨게임즈가 출범하게 된다.

넥슨게임즈의 초대 대표는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가 맡는다. 그는 넷게임즈에서 모바일 게임 '히트'와 'V4'를 통해 두 차례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리니지 2, 테라 등의 개발에 참여하며 국내 게임업계를 이끌어 온 스타 개발자 출신이다. '오버히트'와 '블루아카이브' 등을 통해 국내외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영향력도 높다.

신지환 넥슨지티 대표는 등기이사직을 맡게 된다. 넥슨지티는 2005년 출시한 '서든어택'의 개발사다. 출시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 PC방 점유율 7.72%로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겨룰 수 있을 만한 게임 개발에 집중한다. 넷게임즈는 모바일, 넥슨지티는 온라인 게임 개발에 집중해온 만큼 양사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 모바일·PC·콘솔을 아우르는 게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알려져 있는 넥슨게임즈의 주요 라인업은 '히트'의 후속작인 '히트2'와 5:5 전투가 특징인 '프로젝트D'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루트슈터 장르 '프로젝트 매그넘'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신작을 선보일 계획이다.

넥슨이 출시하는 신작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긍정적이다. 넥슨은 이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 모바일)'을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 던파 모바일은 출시 전날 시작한 양대 앱마켓의 사전 다운로드 총 120만 건, 사전 캐릭터 생성은 110만 건을 각각 달성했다.

이정현 넥슨대표이사는 "새롭게 태어나는 넥슨게임즈가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액셀러레이터 지원 모색"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방문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지난 23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을 방문해 스타트업 프로그램 현황을 듣고, 국내 창업생태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자의 선발·투자·전문 보육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를 말한다.

스파크랩은 2012년부터 매년 두 기수의 배치프로그램을 통해 스타업을 모집한다. 4개월 간 국내외의 창업가, 투자자, 전문가로 이뤄진 스파크랩 글로벌 멘토단의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 평균 1억 원의 초기 투자금과 법률,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데모데이

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후속투자 유치 역시 지원하고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후속 투자유치율은 약 62%로 총 후속 투자유치금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김용진 스파크랩 대표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한 기업을 선발하고 있다"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을 키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스파크랩은 엔셀과 워트드를 각각 중동, 싱가포르·일본에 진출하게 했다"며 "현재 액셀러레이터는 372개사로 평균 11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투자가 처음이야?

투자가 쉬워지는 브랜드 플랫폼

QR찍고 투자가 문화로!

투자가 문화로 길안내

- 이벤트 투자 소싱 체험 공간 슈퍼스타마켓에서 주식을 소싱처럼 쉽게!
- 이티스타와 함께하는 문화살롱에서 다양한 투자법을 즐겁게!

투자, 문화가 된다

- 내 투자성향 맞는? 솔루션 센터에서 나만의 투자법으로 만나!
- 나의 투자 능력 레벨은? 게임랜드에서 복잡한 투자를 재밌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947호(2021-08-18~2022-08-17)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약0.084%~0.499% (온라인 매매 기준, 거래금 액별/채널별 상이), 비대면거래 0.01%(모바일증권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경품 당첨자 부담이며, 경품 가격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투자지원금 당첨자의 경우 제세공과금(22%)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첨자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거나,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경품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으로 교환 환불 하실 수 없습니다.

〈새벽배송업체〉

컬리 상장 시동... SSG닷컴·11번가도 속도 낸다

**컬리, 이달 말 예비심사 청구
상장 후 기업가치 7조 전망
SSG닷컴, 연내 상장 예정
11번가, 하형일 신임 CEO 내정**

쿠팡이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전격적으로 상장하며 업계에 놀라게 한 이후 1년 이 지난 가운데 새벽배송업체인 컬리가 본격 상장 작업에 돌입하면서 SSG닷컴, 11번가 등 후발 주자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유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2021년 결산실적을 기반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게 되며,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장까지 일러야 3분기쯤에 기업공개(IPO)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컬리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김슬아 컬리 대표의 지분율을 문제 삼으며 일정 지연됐다. 2020년 말 기준 김 대표의 지분율은 6.67%였는데 지난해 외부에서 47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으면서 지분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거래소는 통상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20%는 돼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컬리는 김 대표와 재무적투자자(FI)들의 보호예수기간을 길게 설정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일부 FI들의 반발도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줬으나, 최근 김 대표와 FI는 보호예수기간을 각각 3년, 1년6개월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는 지난해 프리IPO까지 성공시키

며 기업가치를 4조 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증권업계에서는 컬리의 상장 후 기업가치를 7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컬리가 예상치대로 증시에 상장할 경우 재투자를 통해 첨단 플랫폼 조성 등으로 사세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컬리가 이커머스로는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 성공할 경우 SSG닷컴, 11번가, 오아시스마켓, CJ올리브영 등 후발 주자들도 상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자로 유력한 곳은 SSG닷컴이다. SSG닷컴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쪼개기 상장' 논란에 선을 그치고 순조롭게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등 기업이 소유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마트 자회사인 SSG닷컴의 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SSG닷컴은 "논란이 된 사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유망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 12월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물 사업부, 신세계의 온라인 쇼핑물 사업부 등이 각각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돼 설립됐다는 것이다.

SSG닷컴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증권업계가 예상하는 기업가치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관건은 시장 변동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SSG닷컴 관계자는 "주간사를 선정하고 차분하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장 변동성이 커져 주간사들과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장을 준비중인 11번가도 글로벌 투자은행 출신을 CEO(최고경영자)로 내정해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된다. 이날 11번가는 신임 CEO로 하형일 SK텔레콤 CDO(최고개발책임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하 내정자는 SK텔레콤에서 ADT캡스 인수(2018년), 티브로드 인수합병(2020년), 우버의 투자유치 및 티맵모빌리티와의 합작사(JV) 설립(2021년), 마이크로소프트·DTCPC 등 윈스토어의 국내 투자유치(2021년) 등 SK텔레콤의 굵직한 신규사업과 외부 투자 유치 등을 맡아왔다. 특히 2020년부터 11번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번가의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론칭을 주도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신규사업 전략 전문인 새 CEO 선임으로 글로벌 사업자와 제휴를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급변하는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증대,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공개 성공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SK바이오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

**조정우 사장 기자간담회
‘세노바메이트’ 美 매출 집중
뇌전증 신약 인지도 1위 목표**

“뇌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진단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조정우<사진>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이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했다. 대표 품목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매출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전 사업영역 실적을 2배로 키우겠다는 각오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완료한 뇌전증 혁신 신약이다. 올해는 매출 16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뇌전증 신약 인지도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영업·마케팅 활동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장은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뇌전증 시장의 톱티어로 성장하고 있다”며 “광고 브랜드마켓 인지도에서 지난해 말 2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시장 확대도 이어진다. 남미 등으로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파트너사 안젤리니파마를 통해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홍콩에는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으며, 캐나다는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중국·일본은 2025년 출시 목표로 임상 3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에 이어 희귀질환인 레녹스-가스도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의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자체 개발 제품군을 확대함에 따라 중추신경계(CNS) 분야 영업망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개발 범위를 넓혀 표적 항암제

‘SKL27969’의 임상 1상에 돌입했다. SKL27969는 뇌종양과 고형암에서의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뇌종양을 타겟하는 핵심 치료제다.

조 사장은 “지난 30년간 CNS 치료제 개발을 지속해 온 SK바이오팜은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하는 신약 개발 실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설명했다.

SK바이오팜은 예방·진단·치료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뇌전증 예측·감지 디바이스 임상을 본격화하고, 단백질 분해·miRNA 등 혁신 기술 접목과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 펀드 투자, 해외 유망 디지털 치료제 벤처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조 사장은 “뇌전증을 예측,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제품을 만들어 올해 국내 임상을 앞두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발표도 계획 중으로, 뇌전증 치료는 물론 예방과 진단까지 환자 전주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유망 파이프라인의 도입은 물론 적절한 기업의 인수·합병(M&A)도 검토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고도화해 실천 범위를 미국 법안까지 확대하며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홈플러스 “제철과일 할인”

홈플러스가 주요 봄 제철 과일의 판매가격을 낮춰 봄철 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 델들이 봄 제철 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코로나 뚫은 올리브영, 작년 최대 실적

**매출13% 늘어 2조1192억
온·오프 연계 옴니채널 적중
코로나 확산 이전 뛰어넘어**

올리브영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2조1192억 원,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1378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전 최대 매출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8%, 영업이익은 57% 증가하며 양적·질적 모두 탄탄한 성장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글로벌 실적이 동반 성장하면서 올리브영은 미래 성장을 위한 확고한 삼각편대를 완성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출점이 둔화된 상황에도 지난해 매장 수를 6개 늘렸다. 온라인 사업도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에서 지난해 23%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올리브영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대표적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2018년 말 선보인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이 급성장하면서 올리브영은 지난해

옴니채널 1위 사업자 입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온라인 주문 가운데, 매장을 통한 ‘오늘드림’ 비중은 38%에 달한다. 올리브영은 전국 1265개 매장 외에도 올해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확대 운영하면서 서울 지역 빠른 배송 커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창사이래 최초로 매장 250개점의 대대적 리뉴얼도 단행한다.

올리브영의 강점인 MZ세대 고객들의 로열티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온라인몰에는 1000만 개가 넘는 리뷰를 확보했으며 모바일 앱 1000만 다운로드, 1000만 멤버십 회원까지 달성하며 올리브영은 이른바 ‘트리플(Triple) 1000만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글로벌 사업은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K뷰티 허브인 자체 역직구 플랫폼 글로벌몰과 일본 현지 제휴몰(라쿠텐, 큐텐) 매출이 지난해 세 자릿수 신장하면서 글로벌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는 글로벌몰에서만 100만 명의 현지 외국인 회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해 갈 것”이라며 “투자도 보다 적극 추진하며 최대 실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쿠팡, 축구장 46개 크기 ‘대구 첨단물류센터’ 준공

3200억 투자 물류기지 구축

쿠팡이 단일 물류시설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대구 첨단물류센터(이하 대구FC)를 준공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24일 쿠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쿠팡 대구FC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의장,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총 4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에 준공한 대구FC는 건축연면적 33만㎡(약 10만 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축구장 46개 넓이와 맞먹는 초대형



메가 풀필먼트 센터(Mega Fulfillment Center)다. 인천, 고양, 동탄 등 전국 각지의 쿠팡FC 가운데 가장 크며, 단일 물류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대구FC는 2019년 5월 최초 설계를 시작해 2020년 2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을 받아 이달에 준공식을 열게 됐다. 대구FC는 4월 말부터 첨단물류설비 테스트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쿠팡은 대구FC에 최소 3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고의 최첨단설비를 갖춘 물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FC는 AI 및 빅데이터와 함께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상품 관리와 배송 동선을 최적화하고, 친환경 물류설비를 갖춘 미래형 혁신 물류센터로 운영된다.

쿠팡 관계자는 “대구FC는 남부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의 핵심 거점”이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권역을 확장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에도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1주택자 보유세 완화했지만...“거래절벽 이어질 것”

정부가 올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동결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만큼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일부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고 ‘뚝뚝한 한 채’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현상 해소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제도가 시행 중이고, 차기 정부에서 양도세 증가 유예를 공약해 이를 기다리는 다주택자도 적잖아 매물 가뭄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안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부담 “팔고 싶어도 처분 어렵다” 지적 “양도세증과 유예·세율조정 필요”

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최근 집값 급등세를 가감 없이 반영했다.

정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세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산정 시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기로 했다. 코로나19와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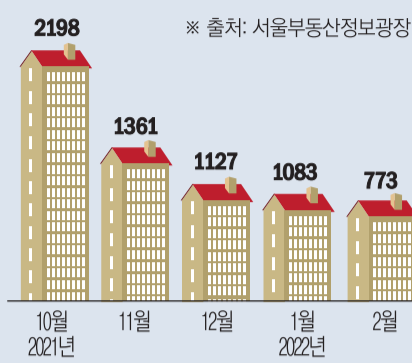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안 지난해 6월 이후 양도분

보유기간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70%	70%
2년 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0%

다주택자 증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부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단위: 건)



문제는 다주택자다.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었지만, 다주택자는 급등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일부는 주택을 처분 후 ‘뚝뚝한 한 채’ 보유전략을 취하겠지만, 대다수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이 어려워 매물 출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산정 시점인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0%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제도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는 부동산 투

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최고 70%(1년 이상·2년 미만 최고 60%)로 인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만들기 위한 양도세 증가 유예와 종부세 부담 급증의 원인인 세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현재 다주택자 매물 출현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거래량 회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버티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고급 주거시설 인기 폭... 강남·용산서도 ‘청약 참패’

‘엘크루 서초’ 108가구 미달 ‘디케이 용산’ 한자릿수 경쟁률

지난해 인기를 끌던 서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고급 주거시설이 올해 분양시장에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자 아파트 대체재 역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모습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분양한 오피스텔 ‘엘크루 서초’는 330가구 모집에 222건의 청약이 접수돼 108가구가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주자 우선의 경우 모집 인원보다 신청 건수가 많아 미달은 면했지만, 기타 지역 청약은 전 타입이 미달했다. 같은 달 서초

최근 분양시장에 나온 고급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엘크루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모집가구: 330	399
신청건수: 222	376
분양가: 19억3406만원 (전용56㎡ A타입 기준)	11억4174만원 (전용40㎡ D타입 기준)

동에 공급된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역시 399가구 모집에 376건의 청약이 접수돼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용산구에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디케이밸리뷰 용산’은 지난 1월 22가구 모집에 68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31대 1, 최고 경쟁률은 42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계약 건수는 2건

에 불과해 지난달 한 차례 청약을 더 진행했는데 이때는 경쟁률이 5.1대 1로 떨어졌다. 미달은 면했지만,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만 해도 아파트 공급단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 시장에서 최고 경쟁률이 세 자릿수에 달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미달이 나오고 가장 낮은 가점의 당첨자가 발생하는 등 열기가 식다 보니 아파트 대체 상품이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는 모습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서울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만든다

이상거래 급증에 대응 나서

최근 서울 내 부동산 이상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들쭉이면서 위법·위반 사례, 신고가 경신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위법·위반 사례는 37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13건, 성동구 222건, 송파구 205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들은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위반 비중도 높았다. 강남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동구 4.5%, 서초구 4.2% 순이었다. 최근 집값이 내림세로 접어들었지만, 특

정 지역이나 단지들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시세 띄우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고가 등 이상 거래 발생 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서울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자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가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시세 대비 많이 뛰는 가격이 나오면 이를 확인하고 각 자치구와 협조해 이상 의심 거래된 건에 관해 조사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2022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계획 공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접수기간	2022. 4. 1(금) - 4. 21(목) 18:00까지			2022. 6. 2(목) - 6. 17(금) 18:00까지
선정분야 및 직종	기계설계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			금형 등 3개 분야 93개 직종
선정인원(사업체)	30명 이내	100명 이내	10명 이내	20개 업체 이내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선정대상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전수계획 및 전수대상자를 확보하고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우대사항	①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② 대한민국명장패 수여 ③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1회) ④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예산범위내) ⑤ 해외산업연수(1회) ⑥ 3년간 정기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①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②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1회) ③ 대학 입학지원금 지급(1회, 예산범위내) ④ 3년간 정기근로감독면제(2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①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흉장 수여 ② 숙련기술전수자 명판 수여 ③ 전수지원금 지원(5년 이내) - 전수자 월80만원, 전수대상자 월20만원	①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②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③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우대 ④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우대 ⑤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⑥ 연료홍보
선정자 발표	2022. 8월 중			

* 자세한 사항은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② 마이스터넷 (http://meister.hrdkorea.or.kr)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시행계획(신청서식 포함)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업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회용컵 무인회수기로 재활용 UP”

서울시 ‘제로 웨이스트’ 추진

서울 내 거점 16곳에 600대 설치 다회용 배달용기 제공 식당 모집 청년환경단체들과 MZ회담 개최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에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600대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제로 웨이스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로웨이스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청 인근 카페 19곳에 무인회수기 16대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지역 등 16개 거점에 무인회수기 600대를 설치한다. 거점 지역은 신사역, 신촌, 강남, 상암 등이다. 무인회수기는 거점 내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대학교, 지하철역, 극장, 병원 등에 설치된다.

시범사업 초기에 47%에 머물던 다회용컵 반납률은 올해 들어 70% 이상으로 꾸준히

밀집해 배달 수요가 높은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로 웨이스트 사업에 참여할 대학 20곳도 모집한다. 참여 대학은 교내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배달 다회용기 회수기 설치 지원, 포장재 없는 상점 만들기 등에 동참하게 된다.

시는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은 스튜디오에서 대학환경동아리, 청년환경단체 청년환경활동가들과 함께 대학 내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캠퍼스 MZ 회담’을 개최한다.

유통매장에서 나오는 포장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마켓’을 100개소로 확대한다. 일반매장이나 지하철 공실상가 등을 제로마켓으로 조성하는 등 1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홈플러스 월드컵점, 이랜드NC백화점 강서점, GS리테일 고덕그라스이점 등 10곳에서 제로마켓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에 다가가는 제로캠퍼스,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준히 늘었다. 종로 시점에는 반납률이 약 80%에 달했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은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멍겨요 4개 음식 배달 플랫폼과 4월 중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공하는 ‘제로식당’ 500개를 모집한다.

시는 요기요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에서 음식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사업에 참여한 ‘제로식당’은 136곳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음식배달은 6만7726건에 달했다.

시는 이번에 대학교, 기업, 1인가구 등이

25년 만에 ‘초원복집’ 판례 뒤집혔다 “몰래 녹음장치 설치, 주거침입 아냐”

“일반인 출입 허용된 음식점은 영업주 허락 없어도 범죄 아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 음식점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 내 방실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도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97년 3월 선고된 초원복집 사건 판결이 뒤집혔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4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이 음식점에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지역감정 조장을 폭로할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이를 도청한 관계자들은 재판을 받게 됐고,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24일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여의도여고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韓, 결핵 발생률 OECD 1위 불명예

매년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

“꾸준한 약 복용으로 완치 가능”

결핵(Tuberculosis)은 국가 2급 감염병으로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나 비말핵이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된다.

매년 3월 2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결핵의 날’로 WHO는 결핵을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3대 집중 관리 질환으로 보고 퇴치사업을 펼친다. WHO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결핵 사망자는 2019년 141만명에서 2020년 149만명으로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2020년 기준 코로나19에 이은 감염병 사망원인 2위다.

특히 한국은 결핵 발생·사망률에서 꼴찌 수준이다. 환자수는 최근 10년간 감소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9명,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8명에 달한다. 결핵 사망자는 2020년 1356명이다. 다만 신규 환자는 2011년 3만9557명에서 2020년 1만9933명으로 줄었다.

박재석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결핵관리사업단장은 “결핵은 감염 후 수 십년에 걸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과거 6·25 전쟁 등 낮은 보건환경으로 환자가 많았고 이때 국민들이 결핵에 감염됐다”며 “경제발전과 함께 범국가적 결핵관리사업으로 발생률은 감소세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결핵은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시 환자의 90% 이상이 완치 가능한 질환이다. 따라서 꾸준한 약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박 단장은 “결핵 치료는 여러 종류 약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한다. 환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 이후 60% 급증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성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

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도 다양해지고 복잡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 학교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반면,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줄었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박꽃 기자 pgot@

고교학력평가 흠피 먹통... 재택 응시자 ‘분통’

2시간가량 시스템 접속 장애 “오미크론 확산에 재택 증가 응시자 외 동시접속자 폭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실시된 가운데 재택 응시자들이 문제지를 내려받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에 2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가정학습을 신청한 재택 응시자들은 2교시까지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평 시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이어졌고 11시께 시스템 복구가 이뤄졌다. 이후 재택 응시생 등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택응시자 문

제지 이용은 비로그인 접속으로 이용하다 보니 재택응시자 외에 다양한 이용자가 있어 동시접속자가 폭주했다”며 “올해 3월 시험은 3개 학년이 모두 응시하고 고3 입시전략에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점에서 이용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버 고도화와 분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시험을 응시하는 학교에 보안 메일을 통해 문제지를 전달해 학교별로 활용하는 LMS(학습관리 시스템)로 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원격수업 대체프로그램으로 학평 문제지를 제공했던 당시에도 서울시교육청과 EBS 홈페이지로 몰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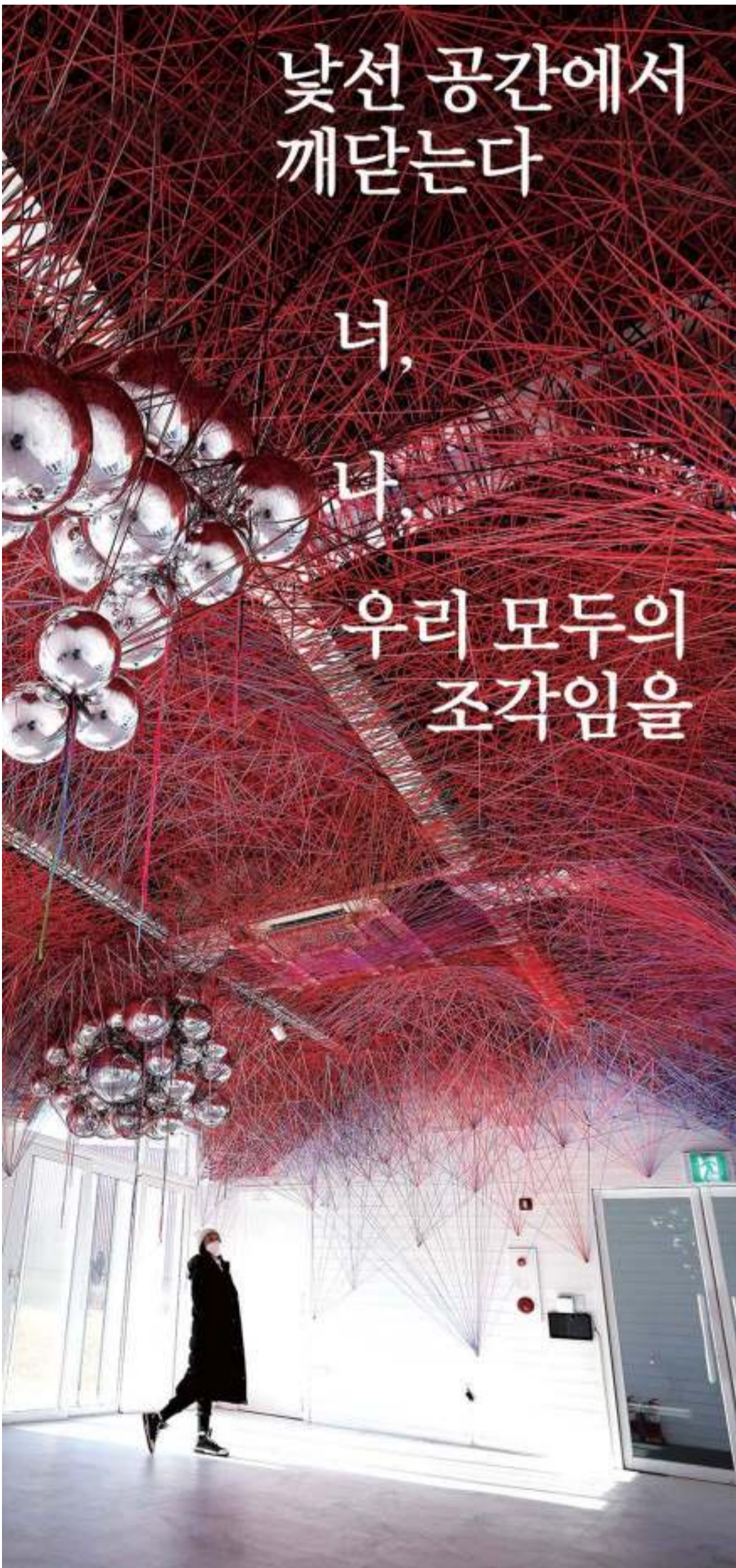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2021년 3월에는 시스템 이용이 원활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별

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학평은 고3 학생들이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처음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지만 이처럼 재택 응시자가 많았던 데다, 재택 응시자의 성적이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이날 학평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다수의 재택 응시자로 인해 실제 결과의 산출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지난 겨울 동안의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망(SNS) 등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현재 상태 ㅠㅠ’, ‘현 시각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등의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인종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집에서라도 보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 “나도 국어 풀게 해달라”, “서버를 제대로 구축하고 시험을 치라고 해라” 등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손현경 기자 son89@



강원 영월군 젊은달 와이파크

● **강렬하다! 빨강을 입힌 대지미술**

산수미로 둘러싸여 서러워할 곳이 강원도 영월군이다. 서린 역사와 보유한 유적은 또 어떨고? 그저 심심풀이로 여행을 갔다가도 오감 만족으로 기억에 새겨지는 곳이다. 박물관, 문화 공간, 전시장의 합이 자그마치 20여 개이니 말 다 했다. 2019년에 개관한 미술관 '젊은달 와이파크'는 개중 등등한 기세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관람객으로 북적인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벌어진 이변이다. 영월 변방 주천면 언덕배기에 있다.

수백 개 강철 파이프로 된 '붉은 대나무' 열정·절정으로 타오르는 불길 연상시켜 자연과 커피의 향 한데 어우러진 '소확행'

'젊은달 와이파크'에서 맨 먼저 만나는 건 입구를 이룬 설치작품 '붉은 대나무'다. 빨간 페인트를 입힌 수백 개의 기다란 강철 파이프로 작은 대나무 숲을 연출했다. 말이 대나무 숲이지 저만치서 보면 길길이 치솟는 불길을 연상시킨다. 빨강은 열정과 절정의 상징색이다. 욕망과 유혹과 혁명의 표식이기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엄습해 교감신경을 일깨우며 심리적 침체를 털어내게 한다. 그렇다면 '붉은 대나무' 입구를 들어서며 가슴을 빨강으로 물들여 기분을 기차게 돋우려는 권유? 미술관에 치러진 성찬을 포식하기 전에 입맛을 다 시라는 애피타이저? 담긴 뜻이 한둘이 아닐 테다.

'붉은 대나무'를 만든 이는 대지미술을 추구하는 조각가 최옥영이다. 강릉 정동진에 대형 미술관 '하슬라아트월드'를 세워 명소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는 내진김에 '젊은달 와이파크'를 2차로 설립해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다. 빨간색은 최옥영의 시그니처 컬러다.

미술관 본관으로 향하는 야외 동선을 따라 걷는다. 미지근한 일상에서 벗어난 쾌감이 오롯하다. 미술관 외벽을 이룬 산과 하늘의 표정은 잡티 없이 해맑아 순수하다. 자연이 그리는 미술을 사람의 예술과 아울러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이 미술관이 지닌 미덕이다.

본관 로비로 들어서자 커피 향이 그윽하다. 매표소를 겸한 카페 공간이다. 낮선 여행지에서 만난 길모퉁이 작은 찻집에서처럼 농밀한 운치를 즐긴다. 요즘 미술관들은 필수 부속처럼 카페를 운영한다. 미술관은 커피를 팔고 관람객은 한 줌의 낭만을 산다. 커피 한 잔과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마는, 커피를 혀로 굴리며 예술을 생각해보는 잠깐의 휴식은 비루한 삶을 잊게 한다. 일러 '소확행'이다.

● **상상력을 돋우는 '목성'**

카페에서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 거대한 돔 안으로 들어선다. 철골빔 뼈대에 일정한 크기로 빠진 소나무들을 굴비 두름처럼 촘촘히 엮어 쌓은 돔이다. 이 미술관의 설치작품 대부분은 최옥영의 생산물. 대형 나무 돔 역시 그렇다. 타이틀은 '목성'(木星)이다. 작가는 우주에 사는 목성이 별뿔뿔처럼 떨어져 내린 이벤트를 상정했다? 그는 나무 무더기를 무수히 쌓아 동굴을 닮은 설치를 하고서 목성을 보라 한다. 광폭의 감성 사이즈로 우주를 느끼라 한다. 그렇다면 '목성'은 우주의 축약이며, 신과 우주를 향한

외경을 표출한 고대 로마의 판테온처럼 신성하다. 최옥영의 창작 변을 간추리면 이렇다.

'무한의 영역인 우주, 상상의 우주를 조각적 형태로 만들었다. 이는 생명의 분화구를 상징한다. 원초적인 힘과 사랑, 그리고 우주적 활력을 돔 안에 쏟아냈다.'

'목성'은 대작이다. 높이 15m, 지름 12m에 달하는 원형 구조물이다. 꼭대기에 행하게 구멍을 내 하늘을 보게 했다. 늘 거기에 있는 일상의 하늘과 돔의 구멍을 통해 올려다보는 하늘은 달라 상상력을 돋운다. 작가의 의도를 따라 앉자면, 저 빛들의 산란은 우주적 쇼다. 우리가 늘 눈에 달고 사는 빛의 출처가 무한 우주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급기야나 역시 우주에 동참한 하나의 소우주임을 느끼게 한다.

'목성'을 뒤로하고 이제 오만 가지 조화(造化)를 오브제로 삼은 설치작품 '시간의 거울-신사임당이 걷던 길'과 만난다. 박신정(그레이스 박)의 작품이다. 여성을 사회적 타자로 방기한 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의 삶과 내면을 침녕쿨과 꽃, 그리고 거울을 설치해 조형했다.

박신정은 최옥영의 부인으로 '젊은달 와이파크'의 관장이다. 화가 부부의 협연으로 미술관을 구축, 공간 곳곳에 선율과 리듬을 부여한 셈이다. 이곳엔 원래 '술샘박물관'이 있었다. 운영이 신통치 않아 먼지를 뒤집어쓰고 버려지다시피 한 걸 박신정 부부가 미술관으로 살려냈다. 미술관이 생동하면서 숨이 넘어가던 술 박물관도 회생했다. 다시 말해 미술관이 술 박물관을 옆구리에 끼고 동행한다.



우주의 축약·활력 돔 안에 쏟아낸 '목성' 미세먼지·사람까지 모두 우주의 미립자 전시장이자 통로로서 평범한 진리 깨쳐

'젊은달 와이파크'의 주조음을 탄주하는 건 어디까지나 최옥영의 작품들이다. 재생타이어 수백 개로 만든 '블랙 드래건', 쓸모를 잃은 널빤지들을 조형해 별의 원초적 에너지를 은유한 '우주정원' 등 다수의 설치작품이 스케일과 볼륨을 과시한다. 그렇다고 난해하지 않다. 뭐가 뭘지 모를 관람의 카오스로 애먼 관람객의 기를 죽이는 현대미술의 경향과 달리 감정이 입이 쉽다.

재미있는 미술관이란? 어디서 도무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미술관? 그렇다면 이 미술관이다. 공간 구성의 핵을 이룬 작품 '레드 파빌리온'을 보라. 철제빔과 철판, 쇠파이프만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 흥미로운 구조물은 전시장이자 통로다. 그는 말하고 싶었나 보다. 하늘, 산, 들판, 마을, 허공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우주를 이루는 미립자라는 걸. 글/ 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젊은달 와이파크' 박신정 관장 인터뷰

"쉽고 즐겁게 미술관의 전부를 즐겨라"

박신정(사진) 관장은 '젊은달 와이파크' 이전에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를 만들었다. 남편 최옥영 작가와 함께. 처음엔 '하슬라아트월드'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사립미술관에 따개비처럼 들러붙는 게 운영난이라서 하지 말라는 고언이 난무했던 것.

'젊은달 와이파크'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박 관장 부부는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어떤 신념이 박 관장을 추동했을까?

"예술가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컸다. 작품에만 주력하는 작가들과 좀 다른 길이지만, 미술관을 통해 대중에게 현대미술을 보여주고, 돌아

오는 반응과 소통하고 싶다는 건 오래된 꿈이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후미진 시골 동네에 미술관을 열 용기를 내다니

"미술이란 아름다운 세계가 아닌가? 내가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남들 역시 아름답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 계산이 아닌 확신, 좋아하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미술관을 설립했다."

- '젊은달 와이파크'의 관람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미술관에 산재하는 모든 구조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즐기면 좋겠다. 최옥영 작가는 이곳의 8000여 평 부지를 통째로 오브제로 삼아 대지미술을 구현했다. 특별하



기른 '레드 파빌리온'이다. 어디에도 없는 구조물이니까. 주변의 자연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고."

-술샘박물관의 구색이 고루해 아쉽더라

"영월군이 만든 박물관이라 손떨 수 없다. 첨단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지만."

-미술을 즐기는 국내 애호가들은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나

"애호가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좋아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도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웃음)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나? 심지어 미술작품을 그저 아이들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지."

-미술을 좋아하는 이가 드물어 사립미술관들이 난항을 겪는 현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

"미술관 운영자들의 강인한 자립 의지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미술관 두 곳을 운영하는 내겐 원칙이 있다. 외부 환경을 탓할 것 없이 자립하겠다는 게 바로

그렇다. 정말 수익이 없어 벼랑에 몰린다면 문을 닫는 게 순리라는 각오도 다졌다. 예술이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박 관장은 일곱 차례 개인전을 치른 화가다. 주로 작가적 개성과 고집을 가지고 까다로운 작업을 이어왔다. '젊은달 와이파크'에 있는 설치작품 '시간의 거울-신사임당이 걷던 길'은 다르다. 작품이 변했다. 한결 쉬워졌다

"신사임당이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름다운 건 상처의 반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담은 작품이다."

모성(母性)의 빛과 그늘에 봉헌한 작품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그는 삼척에 세 번째 미술관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부분 개관을 한다.

IBK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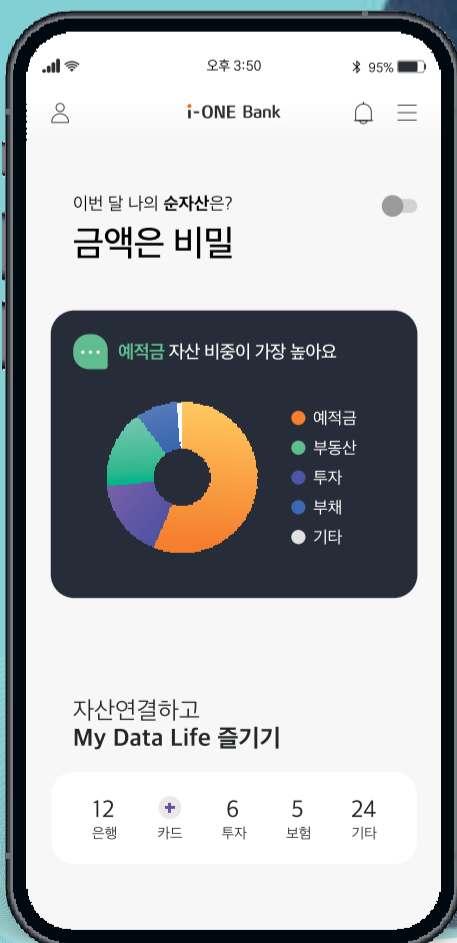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자기관리의 끝은
자산관리다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631호(2022.02.08) 유효기간(2023.02.07)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 256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9 7490, e-mail : ibkethics@ibk.co.kr



혁신 앞장선 유통명가 코로나 뚫고 퀀텀점프

제12회 이투데이 소비자유통대상

	회사명	업태	응모부문
종합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현대백화점	백화점	고객서비스
한국유통학회회장상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크리에이티브굿즈	면세점 패션	유통CEO 마케팅혁신
한국소비자학회회장상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롯데GRS	식품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사회공헌 친환경유통 유통혁신 소비자만족
	농심	식품	해외시장개척
	애경산업	화장품	소비자만족
	서울우유협동조합	음료	소비자만족
	오비맥주	주류	마케팅혁신
	하이트진로	주류	소비자만족
	매일유업	식품	사회공헌
	대상	식품	친환경유통
	동서식품	식품	친환경유통
	롯데칠성음료	주류	상생협력
	파리크라상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이랜드	패션	상생협력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동안 극성을 부리면서 어느 업종보다 유통업체들은 기간 터널을 지나야 했다. 하지만 '위기 속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체질개선과 업종 다변화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다.

특히 '2022 대한민국 소비자유통대상' 수상기업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확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서고 있고, 산지 생산자들과 납품 업체와의 상생 노력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퀀텀점프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업역으로 확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준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유통대상'의 주역들을 소개한다.

종합대상 현대백화점

“고객을 행복하게” 소비자 중심 경영 박차

현대백화점은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고객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가치와 미래 창조'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불만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업계 유일의 공개형 '고객의 의견(VOC)'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만드는 서비스'라는 공개형 게시판을 운영해 고객이 제안하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H-윌렛, 업계 최초의 사은품 적립 시스템 '주머니' 등 고객 편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내방송의 품질 관리와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에게도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한 TTS (Text-to-Speech



)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중이고, 매장 방문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주변 LED 조명형 안내 사인물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매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아동복지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회장상_유통CEO 롯데면세점

세계 첫 온라인 명품관 '글로벌 1위' 정조준

롯데면세점은 1980년 개점한 이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점과 인터넷 면세점을 갖추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모바일 면세점을 운영하며 국내 1위 및 글로벌 2위 면세점의 입지를 달성했다. 또한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거점 국가에 진출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업계 선도하고 있다.

그 위상에 맞게 롯데면세점은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등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부터 국산 중소중견 브랜드까지 2000여 종의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과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을 선보이는 등 한국 관광산업의 첨병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이커머스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세분화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업계 내 차별화된 전략으로 글로벌 1위 면세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디지털 전환(DT) 담당 조직을 신설한 롯데면세점은 △탄력적 비즈니스 지원 △효율 중심의 IT



환경 조성 △고객 행동 중심의 디지털화라는 3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업계 최초 비대면 매장인 '스마트스토어' 설치를 시작으로 스마트 영수증, 온라인 플랫폼 전면 리뉴얼, 세계 최초 온라인 면세 명품관 '소공 1번지' 등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면세 쇼핑환경을 온라인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지난 해 말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에서 주관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21'에서 모바일 웹 부문 최고대상과 PC 웹 부문 대기업종합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통학회회장상_마케팅혁신 크리에이티브굿즈

애슬레저 D2C 플랫폼 'MZ세대 취향저격'

크리에이티브굿즈는 2020년에 설립된 제조 기반의 새내기 미디어커머스 기업이다.

크리에이티브굿즈는 철저한 시장조사, 최고급 소재를 통한 제품 제조, D2C(소비자직접거래) 전략을 기반으로 애슬레저 시장에 도전했다. 유피라운지는 2020년 10월에 론칭한 남성 프리미엄 집웨어 브랜드로, 현재 하루에 5000명 이상의 MZ세대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앞으로 '애슬레저계의 유니클로'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확장하고 있는 남성 집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여성 애슬레저 브랜드 디쉬 외에도 다양한 잡화, 화장품, 비건푸드 등으로 신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이프 스타일 집웨어'를 강조하는 유피라운지는 집웨어 본연의 기능성은 물론이고 스타일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위해 맨투맨과 조거팬츠 등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했다. 특히 기존 집웨어의 틀을 깨 윈단 가공 방법(엔자임 덤블워싱)을 사용해 제품의 내구성을 높였다.

모든 제품을 워트니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디자인한 '유피라운지 집웨어'는 봉제 공정 및



윈단 가공 등 제작 전 과정에서 국내 생산을 고집하며, 최상의 퀄리티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다.

유피라운지는 한국 브랜드 인기가 높은 베트남 시장도 노리고 있다. 지난 해 수출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돼 보다 다양한 수출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전망이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유피라운지는 약 2만여 명의 회원의 전체제품 만족도 5점 만점에 4.9점을 달성하고 있으며, 제품의 재구매율도 40%에 달한다.

“대전환 시대, 유통 성공의 답은 소비자”

심사평 추호정 한국유통학회장

대한민국 소비자유통대상은 이투데이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최고의 고객 만족을 통해 성과를 거둔 유통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진행되는 권위있는 유통 산업 분야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유통산업 대전환기의 혼란이 팬데믹으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지지향적 혁신을 통해 소비자 만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 우수한 유통기업을 시상하였다. 수상 기업들은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을 통해 유통서비스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로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올해의 종합대상은 현대백화점이 수상하였다. 현대백화점은 여의도에 문을 연 '더 현대 서울'을 통해 비대면 소비 시대로 진입한 한국 유통산업 지형에서 물리적인 점포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제화한 새로운 유형의 백화점을 제시하였다. 백화점 업체에 대한 틀을 깨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소매 공간의 제안은 비대면 디지털채널과 유연하게 연결되고 상호 시너지를 만드는 오프라인 점포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유통학회장 상으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크리에이티브굿즈가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학회회장의 영광은 아모레퍼시픽과 오뚜기에 돌아갔다. 이외에도 유통혁신, 소비자 만족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혁신, 사회공헌, 친환경 유통, 상생협력 부문의 우수기업으로 총 1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어제와 오늘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임에도 변하지 않는 유통 성공의 답은 소비자에 있다. 소비자 만족을 통한 성장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집중하는 유통기업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수상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국소비자학회장상_사회공헌 오뚜기

상생 경영으로 47년 연속 매출 증가



오뚜기는 국내 식품산업의 초창기에 공익성 추구, 스위트홈 추구, 미래지향 추구를 경영이념으로 의식 주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들의 식생활을 해결하고 인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지 올해로 53년째를 맞았다.

오뚜기는 지금까지 카레, 스프, 케찹, 마요네스, 레토르트, 순식물성 마아가린 등 국내 최초의 제품들을 생산,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선진화를 이끄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비자의 사랑에 힘입어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품질제일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인류의 식생활 향상과 식품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47년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오뚜기는 설립 이후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출시,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출 활동, 공격적인 국내 영업활동, 노사화합 등을 통해 단 한번의 매출 감소도 없이 연속적인 매출 증가를 이룩했다.

특히 오뚜기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1976년부터 주주에게 계속해 배당함으로써 주주와 함께하는 기업경영활동을 해가고 있다.

이같은 상생 경영과 연구개발에 대한 집착으로 오뚜기는 경쟁사가 1~2개 갖기도 힘든 시장점유율 1등 제품을 30여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 카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오뚜기 카레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자존심을 지켜낸 마요네스, 케찹, 매장 내 시식 판매의 시초가 되었던 스프 등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국내 1등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인류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오뚜기는 30여년동안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통해 5595명(2022년 2월 기준)의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특히 오뚜기의 사회공헌활동은 보여주지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 차원 높은 사회공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학회장상_친환경유통 아모레퍼시픽

모든 신제품에 환경·사회적 가치 담아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대표 뷰티 기업으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크게 화장품 사업 부문과 DB(Daily Beauty)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해 6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인 '2030 어 모어 뷰티풀 프로미스(2030 A MORE Beautiful Promise)'를 공개했다.

이는 사람과 세상 모두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아모레

퍼시픽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과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자, 향후 10년간 추진해 나갈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이다. '고객 및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한 목표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 약속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경험과 노하우가 총망라된 것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새롭게 추진할 장기적인 지속가능경영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고객'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2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

했다.

첫 번째로는 신제품 100%에 환경 또는 사회 친화적 속성을 구현하고 고객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기여하는 브랜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제품 '환경 발자국' 저감, '그린 케미스트리' 기술 혁신,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 전개 등이 주요 골자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내외에 확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로운 성장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1993년 '무한책임주의'를 선언한 이래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소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9년부터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한 곳에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통역신 CJ제일제당

대체육 등 식물성식품 사업 20년 후 미래 먹거리 도전



CJ제일제당은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설장 제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대표 한식 브랜드인 '비비고'는 세계인의 밥상에 K푸드를 소개하고, PGA투어 정규대회 'The CJ CUP'의 메인 스폰서 브랜드로 활약하며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 식품과 바이오 사업의 글로벌 거점은 일본과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 미국, 독일, 호주, 브라질 등 50곳에 달한다.

식품사업 부문에서는 고성장세를 꾀는 발상의 전환으로 수많은 브랜드와 히트 제품들을 내놨다. 국내에서는 3대 핵심 가정간편식(HMR) 브랜드인 '햇반', '비비고', '고메' 등 온리원(ONLYONE) 브랜드로 식품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의 영양 및 건강, 환경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No.1) 바이오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Nature to Nature'의 선순환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혁신 제조기술과 경쟁력을 앞세워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는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해로,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된 R&D 기술력으로 2016년부터 준비해 온 대체육을 비롯한 식물성 식품 사업은 지난해 말 비비고 '플랜테이블' 만두를 국내에 론칭했으며 해외 시장 출격에도 나섰다.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 및 협업도 활발히 진행돼 지난해에만 세계적인 대체·배양육 스타트업 등 10여 곳에 투자했다.

소비자만족 롯데GRS 롯데리아

인기메뉴 '든든점심' 할인 소비자 가성비·가심비 만족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는 1979년 국내 최초 서구형 외식 문화의 대명사인 '버거'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국내 대표 기업이다. 최근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신메뉴 개발과 함께 가성비·가심비 소비 트렌드에 반영한 '든든버거' 캠페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0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타임 프로모션 메뉴인 착한점심을 '든든 점심'으로 네이밍을 변경하고 제품 구성을 늘려 고객 선택폭을 강화하는 한편, 대표 메뉴의 중량 리뉴얼을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든든버거 리뉴얼에 앞서 가성비·가심비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런치 프로모션 '착한점심' 메뉴의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300원 가량 가격을 낮추고, 인기 세트 메뉴를 정상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제품의 중량을 높이고 가격 정책 개선 결과 '착한점심' 판매량은 지난해 6월 약 30% 증가한 70만 개 이상 판매 되었으며, 7~8월은 80만개 이상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더블 패티를 적용한 메뉴인 '사각새우더블버거' '더블 핫크리스피버거' 등 가성비를 주제로 다양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며 가성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고기버거·한우불고기버거의 양상추 양을 기존 대비 1.5배 가량 높이고, 각 패티의 중량 역시 각각 25%, 28% 높였다.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해 더욱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판매량은 리뉴얼 전 대비 약 25% 판매량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외식 트렌드를 반영한 기존 제품의 리뉴얼 및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고객 모시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시장개척 농심

100개국 식품 수출기업 다음달 미국 2공장 가동



고 신춘호 회장이 1965년 라면사업의 뜻을 세우고 설립한 농심은 1971년 '소고기라면'을 히트시키며 라면 시장점유율 20%대에 올랐고, 같은 해 '새우깡'을 선보이며 한국 스낵시장을 개척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과감한 설비투자자와 생산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질적 고도화를 이뤄냈다. 농심은 라면의 맛과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해 안성 스프전문공장을 설립한 후 너구리(1982년), 안성라면(1983년), 짜파게티(1984년) 등 히트제품을 잇따라 내놨다. 이들 제품의 활약에 힘입어 농심은 1985년 3월 40.4%의 시장점유율로 라면 업계 정상에 올라섰다.

1990년대에는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1994년 농심아메리카, 1996년 상해공장, 2002년 농심재팬 법인을 설립하며 미국, 중국, 일본 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농심은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꾸준한 해외 성장세로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유로모니터 선정 라면기업 세계 5위에 등극했다.

농심은 신라면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신라면은 식품한류의 선두주자로서 세계 100여 개 국에 한국의 매운맛을 전하고 있다. 단일 식품브랜드로 100개국 수출은 업계에서 신라면이 유일하다. 특히 2020년 농심 신라면블랙은 미국 뉴욕타임즈의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Wirecutter)'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최고의 라면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4월에는 미국 2공장을 본격 가동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 공장은 농심의 6번째 해외 공장으로서 연간 3억5000만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갖췄다. 제2 공장 건립에 따라 농심의 미국 연간 라면 생산능력은 기존의 1.7배인 8억5000만 개로 확대된다.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육개장 사발면 생산에 주력해 북미를 비롯해 시장 규모 4억 달러의 멕시코 시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만족 애경산업

수분·커버력 다 갖춘 AGE 20's K-뷰티 선도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6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노력의 성과로 애경산업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장수 주방세제 브랜드 '트리오', 토털 오펜케어 브랜드 '2080', 헤어클리닉 브랜드 '케라시스' 등 인지도 높은 생활용품 브랜드와 원조 에센스 커버팩트의 'AGE 20's' (에이지투웨니스), 색조 전문 브랜드 'LUNA' (루나), 클렌징 전문 브랜드 'POINT' (포인트) 등 다

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자체 R&D센터, 디자인센터, 생산설비,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하고 있으며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기술력,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유기증권시장(KOSPI)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더 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애경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 20's' (에이지투웨니스)는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 및 동남아, 미

국, 일본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론칭한 AGE 20's의 대표 제품인 AGE 20's 에센스 커버 팩트'는 2013년 9월 흡소핑을 통해 처음 선보인 후 지난해까지 단일 품목으로 누적판매 1억5000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팩트'로 자리잡았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 여성이 1인당 'AGE 20's 에센스 커버 팩트'를 7개씩 사용한 셈이다.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의 인기 요인은 촉촉함과 커버력을 모두 갖춘 탄탄한 제품력이다.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는 고체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 에센스를 함유하는 '에센스 포켓 기술'로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만의 차별화된 제형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표현해준다. 또한 AGE 20's만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라메' 기술로 피부 커버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만족 서울우유협동조합

1등급 원유 사용한 '나100%' 우유 품질 UP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리나라 낙농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1937년부터 85년간 국민 건강을 생각하며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건강하고 품질 좋은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직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목장 및 젖소 건강관리 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차별화된 원유 품질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업체로서 서울우유는 우수한 제품개발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명의식 아래 고객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1984년 국내 최초로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소비자가 마실 때까지 유통 전 과정을 냉장 상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 세균수 '1A등급' 우유를 출시해 우유 품질을 낙농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2009년에는 '제조일자 병행 표기제'를 도입해 신선도 높은 우유를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도 거듭하며



최근에는 '나100%' 우유를 출시해 흥행을 거뒀다. '나100%' 우유는 세균수 1A등급에 체세포수까지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한 두 개의 1등급 프리미엄 우유로 그동안 우유의 위생 품질 기준을 세균수만으로 가능해 왔다면 체세포수라는 새로운 기준까지 적용해 우유 품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체세포수 1등급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서울우유 전용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만을 등급에 따라 분리 집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 브랜드로서 유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혁신 오비맥주

카스 필두 30개국 20여종 '한국맥주 세계화'

오비맥주는 1933년 태동해 지난 80여 년간 한국 주류산업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 대표 맥주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3개 공장에 최고 품질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췄다.

오비맥주는 국내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대표맥주 '카스'와 국내 저알코올 대표맥주 '카스라이트', 국내 첫 비알코올 음료 '카스0.0', 대한민국 대표 라거 '한맥', 1952년 출시한 OB라거 브랜드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100% 몰트 맥주 'OB라거', 토종 프리미엄 맥주 '카프리',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호가든', '스텔라 아르투아' 등으로 국내 맥주 시장을 견인해왔다.

최근에는 20대를 겨냥한 발포주 '필두', 맥주 중주국 독일의 대표 라거 '벡스', 800년 전통의 수도원 맥주 '레페', 산뜻한 허브티와 같은 2.5도 저도주 밀맥주 '호가든 보타닉'과 라즈베리의 달콤함을 담은 과일 밀맥주 '호가든 로제' 등 다양한 맥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는 한국 맥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해 국내 맥주 수출 1위를 지키며 맥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몽골의 대표적 프리미엄 맥주로 자리잡은 '카스'를 비롯, 홍콩 시장점유율 1위인 '블루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 20여종의 맥주를 수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식품안전성과 품질, 브랜드 마케팅 등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이천,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청주 등 모든 공장이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을 획득해 모든 맥주 제품에 대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양조기술력으로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카스 프레시는 2013-2016년 총 4회에 걸쳐 세계 4대 맥주 품평회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 세계 맥주 품평회'에서 아메리칸 라거 스타일 맥주 부문에서 수상,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202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2021 제9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만족 하이트진로

청정라거-테라, 1000일동안 23.6억병 불티

출시 3년차를 맞은 하이트진로의 청정라거-테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 국내 맥주 시장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출시 1000일 만에 누적판매 23억6000만 병을 돌파(지난해 말 기준)해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1초당 27.3병꼴로 팔린 셈이다.

출시 초기 최단기간 100만 상자 출고를 기록하며 역대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청정라거-테라는 100일 만에 1억 병, 200일 만에 약 3억 병, 500일 만에 10억6000만 병을 돌파하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다.

지난해부터 더욱 강화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0일 동안 23억6000만 병 판매 돌파는 대세감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이트진로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출시한 테라의 돌풍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으며, 흡술 트렌드 등 가정



용 시장을 집중하며 주류업계 대표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0% 리얼탄산 공법은 라거 특유의 청량감을 강화하고, 거품이 조밀하고 탄산이 오래 유지된다는 강점이 있다. 올 2월에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시장 분위기에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테라 신규 캔 400ml와 463ml를 출시했다.

최근 영업시간 완화로 유흥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술자리 재미를 더하고자 청정라거-테라에 최적화된 병따개인 '스푸너'를 선보였다.

스푸너(스푼+오프너)는 성인남녀의 평균 손너비 142mm를 고려해 제작하고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테라의 병뚜껑 '슈퍼크라운'과 완벽 조화를 이뤄 33도 각도에서 뺏을 때 110dB의 청량한 사운드를 탄생시키는 '인체고막적' 설계를 적용했다.

27N(뉴톤)의 힘이 필요했던 기존 병따개와 달리, 손가락 들 힘(8N)만 있으면 누구나 가뿐하게 뺏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공헌 매일유업

22년간 환아 위해 희소·난치병 특수분유 생산

매일유업은 '건강한 가족의 행복'을 테마로 영유아,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소수의 환아들을 위한 특수분유 제조는 물론, 예비엄마교실 운영을 통한 출산장려활동, 사내 봉사 동호회를 주축으로 국내 입암원 후원, 진암장학재단, 진암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장학사업,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 분유 지원 등이 주요 활동이다.

매일유업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업 철학 아래 선천적으로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는 환아들을 위한 특수분유를 생산해 오고 있다.

100만 명 중 1명꼴로 태어나는 희귀난치병 PKU를 비롯해, MPA, Protein-Free 등 8종 12개의 특수분유를 생산한 지 올해로 22년째다.

특수한 식이요법이 아니면 장애아가 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하는 특수 질환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해오던 특수분유를 매일유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생산하고 있다.



1993년 진암사회복지재단을 설립, 사회복지시설과 영세민 지원에 힘써왔으며, 1996년 12월에는 재단법인 진암장학재단을 설립, 불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물론 교육기관의 학술 연구비 지원, 과학기술의 연구, 조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 활동도 한다. 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분유 지원, 이유식 교실, 공장 견학 등으로 활동을 넓혀왔다. 단순히 현물이나 현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 여성들이 건강한 출산과 올바른 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일유업 다문화 지원 활동의 핵심이다.

친환경유통 대상



40여 국가에 '한국 김치' 우수성 알린다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다는 이점과 뛰어난 맛 때문에 김치를 사먹는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상 증가집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표적인 김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8년 최초 출시 이후 증가집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100% 국내산 재료'로 김치를 담근다는 원칙이다. 대상 증가집 김치의 연간 국산 배추 사용량은 약 7만 톤에 달한다. 배추 외에도 고추, 마늘, 양파 등 김치에 들어가는 원재료들도 산지 직송을 통해 공급받는다.

또한 표준화된 맛과 수출을 위해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 포장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증가집은 1989년 탄산가스를 붙잡아두는 '가스흡수제'를 김치 포장 안에 넣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이듬해 특허를 출원, 1991년 업계 최초로 KS마크를 획득에 이어 1995년 전통식품인증마크를 획득하며 세계 일류화 상품으로 선정됐다.

증가집은 2001년부터 김치유산균을 분리·배양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유산균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증가집은

이를 직접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에 100% 국산 식물성 원료인 배추를 발효해 만든 '식물성 유산균 발효액 ENT'는 김치유산균의 활용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4월 대상은 새로운 김치 주문 서비스인 '종가집 김치공방'을 선보였다. 종가집 김치공방은 소비자가 원하는 맛의 김치를 필요한 양만큼 주문받아 제조해 당일 출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김치 주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증가집은 현재 미주와 유럽,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일본 수출 물량 90%,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 수출되는 물량 80% 이상을 현지인이 소비하는 등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김치를 찾는 현지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유통 동서식품

'맥심 슈프림골드' 9년 만의 새 커피 인기

동서식품은 1968년 설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내 커피 시장을 이끌어 오고 있는 기업이다. 커피믹스부터 인스턴트 원두커피까지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동서식품은 1989년 메가 히트제품 '맥심 모카골드'를 선보인 이후 30여 년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커피믹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출시한 '맥심 슈프림골드'는 동서식품이 9년 만에 선보인 새로운 커피믹스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고의', '진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맥심 슈프림골드는 진하고 풍부한 커피의 맛과 향에 부드러운 라떼 크림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제품이다. 기존 커피믹스 대비 커피 강도와 향미를 높여 깊은 커피의 맛을 구



현했으며, 우유를 넣은 라떼 크림을 함유해 한층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서식품은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생산되는 스타벅스 컵 커피 제품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빨대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맥심 티오피(Maxim T.O.P) 컵 커피 제품에도 종이 빨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종이 빨대 도입을 통해 연간 약 36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식품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에서 맥심 커피믹스 대규모 제품에 종이 손잡이를 도입해 연간 약 2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캔, 페트 등 RTD(Ready to drink) 음료 용기 경량화와 제품 포장 리뉴얼 등을 추진하며 친환경 자원 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상생협력 롯데칠성음료

'RE100' 목표 탄소중립·ESG 경영 박차

롯데칠성음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지역사회, 환경보호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롯데칠성음료 ESG위원회'를 설립해 △탈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친환경 공급망 구축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 도입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경영 실현 및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발생한 강원,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산불 진화 및 피해 복구에 나선 구조 인력들을 위해 '아이시스8.0' 약 2만2000개, '게토레이' 약 1만 2000개를 전달했다. 2019년 12월 첫 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들과 의료진을 위한 지원 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21년 상반기부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시스 8.0', '칠성사이다'에 브랜드명 점자 표기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롯데칠성음료 본사와 강릉공장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그린 위드'를 여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지난해 롯데칠성음료는 6월 말 '한국산업단지공단', '켄코(한전)에너지솔루션' 및 '스마트에너지플랫폼협동조합'과 손잡고 롯데칠성음료의 음료 및 주류 생산공장, 지점, 물류센터에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향후 'RE100 (Renewable Energy 100,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목표로 탄소 배출 감소 및 탄소 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상생협력 파리크라상

제빵 최적 토종효모 '상미종' 적용한 빵 선택

파리크라상은 한국 전통누룩에서 제빵 적성에 가장 적합한 토종효모를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산학공동연구로 국내 최초 발굴해 제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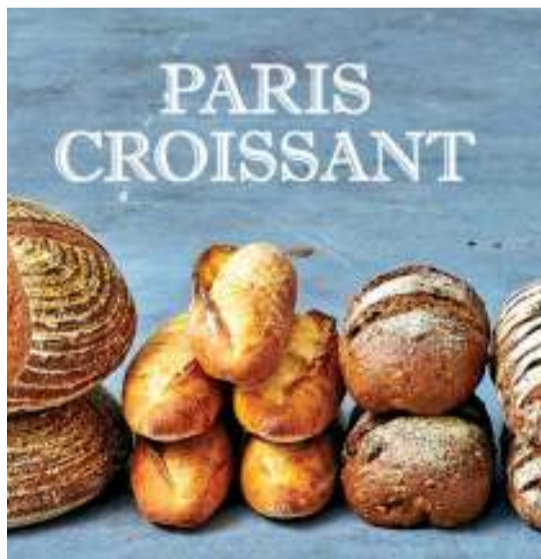
토종 효모 유산균 발효종인 상미종을 적용한 시그니처 브레드, 생식빵 등을 꾸준히 선보이며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라인인 시그니처아다지오(커피), 시그니처생크림케이크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모바일 시대에 맞춰 빠른 주문·배송 시스템 구축 및 교육을 진행한다.

총 3회 주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활한 제품 공급을 시행한다. 2012년 6월 모바일 웹포스를 열고 편의성을 증대했다.

상생 경영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 2회 가맹본부 대표이사,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단과 상생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가 POS시스템을 통해 불편사항 등록시 유관부서 팀장이 직접 가맹점과 소통 및 답변하는 POS건의사항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과의 MOU 체결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익산 쌀, 영천 미니 사과, 강진 파프리카, 진주딸기, 토마토 등의 상품을 지역 농가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우리 농가에는 안정된 판로를 제공한다.



201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복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201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우리 농축산물 구매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와 태풍, 장마,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행복상생프로젝트(1탄 강원도 평창감자, 2탄 제주 구과당근, 3탄 충남 논산딸기, 4탄 무안양파 등)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력 이랜드

친환경 에코데님 생산하고 수익 기부까지

이랜드는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141억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대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형 선순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이랜드는 우수등급 평가(2020년)를 받았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는 2015년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A 등급 공인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21년 A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패션산업에 성실기업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성실납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관리 플랫폼 통한 업무 생산성 혁신사례는 2021년 관세청에서 실시한 AEO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매년 납세 신고요류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영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발맞춰 친환경 공법과 소재를 사용한 에코 데님의류를 생산하고 제품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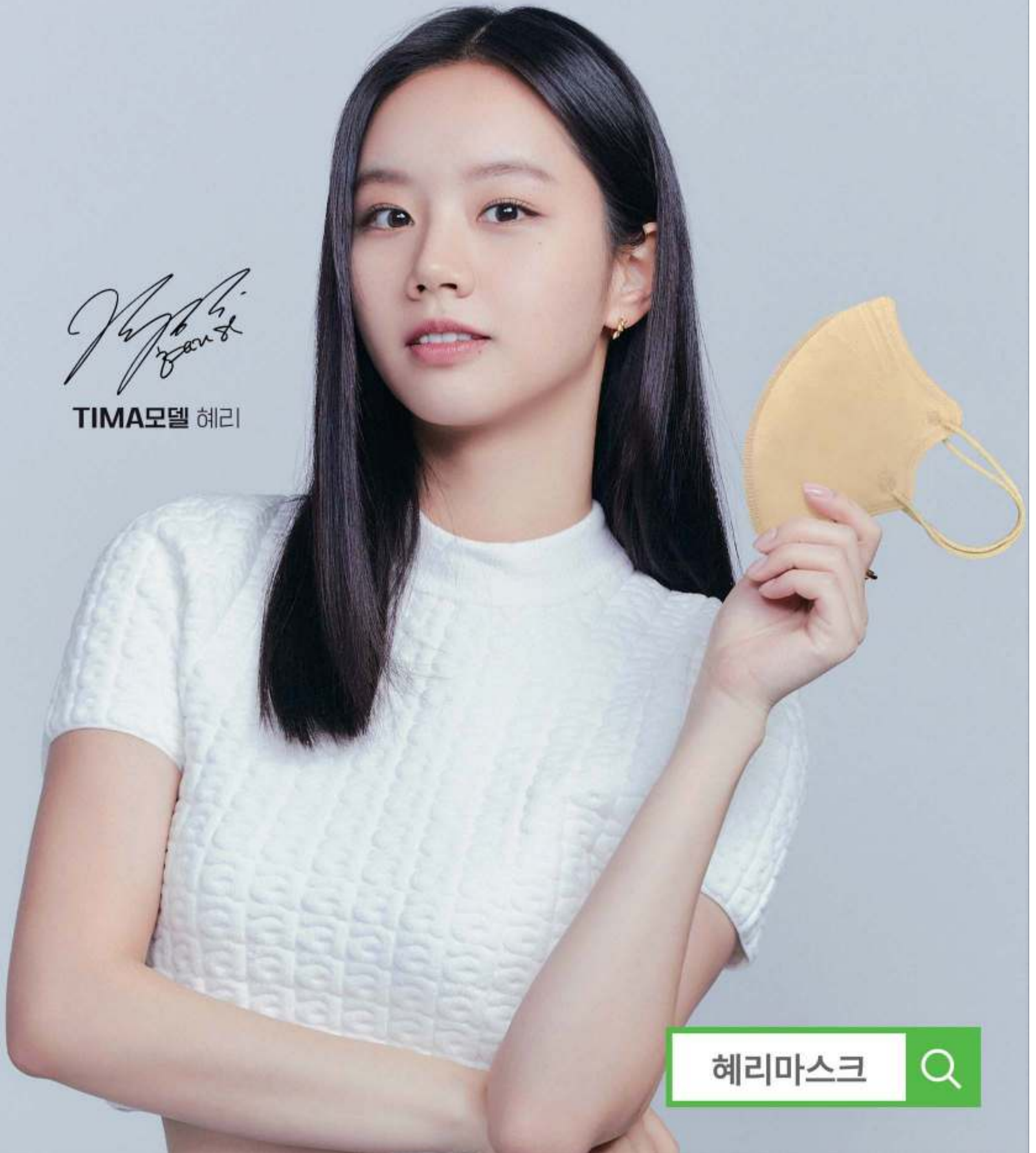
약자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수익금을 통해 베트남 지역 우물, 물탱크, 정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소수 민족 식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약 228억의 이상을 공익 법인 등에 기부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21%를 감축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했고, 고객 중심의 생산성 향상 활동 혁신모델을 운영한 공로로 국가생산성 대회,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T I M A × H Y E R I

숨 쉬는 트렌드, 티마



TIMA모델 헤리



헤리마스크



“젠투펀드 환매중단, 해외판 라임·옵티머스 사건”

기관투자자 피해 대리하는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현재 30여곳, 만기도래 시점 급증 예상 판매운용사 위법행위·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 집중해 따질 것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젠투펀드’는 홍콩계 회사인 젠투파트너스에서 발행한 사모펀드다. 두 차례 환매중단 됐고,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지만 환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투자규모의 70%가 기관 투자자여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금융자본시장법팀장을 맡은 전문수(사진) 변호사는 젠투펀드 기관 투자자들을 대리해 투자금 회수·최대치 배상을 목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금융기관 제재신청 역시 병행한다.

전 변호사는 “현재 로고스에 의뢰해 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기관 투자자는 30여개 업체”라며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업체는 150여 곳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매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초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젠투펀드는 주로 한국계 외화채권(KP물)을 투자했다. KP물은 국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으로 안정성·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다. 문제는 젠투파트너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펀드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신용부도스와프(CDS) 계약을 체결해서 펀드의 위험이 다른 펀드에 이전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TRS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상품이며, CDS란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만 따로 분리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전 변호사는 “젠투파트너스가 펀드 구조의 위험성을 국내 판매운용사에는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운용사가 이를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랐다고 해도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매운용사가 젠투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적합성의 원칙·설명 의무 준수 여부 △기관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등에 집중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계획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을 할 경우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 판매운용사에 대한 제재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다.

전 변호사는 “판매운용사는 금감원 제재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기관투자자의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합리적 의심

이 없는 증거관계가 축적된다면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 고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겪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다수 생겼지만,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 변호사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판매운용사와 비교하면 가진 정보의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에서는 전문투자자로 취급되지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일반투자자로 여겨져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판매운용사는 젠투펀드가 파생결합증권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TRS-CDS 계약에서 알 수 있듯 장외파생상품이 내부 구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10년 전 키코(KIKO) 사건을 맡으면서 적합성 원칙이 법에 정착되도록 하는 등 투자자 관점에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왔다”며 “젠투펀드 역시 투자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제기 기자 sunrise@

11번가 CEO에 하형일 SKT CDO

11번가는 신입 CEO로 하형일 SK텔레콤 CDO를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개발 및 글로벌 사업 전문가인 하형일 내정자는 맥리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에 몸담으며 쌓아온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8년 SK텔레콤에 합류한 뒤, 적극적인 투자기회 발굴을 통해 SK텔레콤의 뉴ICT 사업을 진두지휘해왔다. 특히 2020년부터 11번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번가의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론칭을 주도했다.

아울러 11번가는 안정은 11번가 포털기획그룹장을 최고운영책임자로, 11번가 박현수 코퍼레이트센터장을 영업총괄로, SK텔레콤 김태완 성장사업담당을 최고전략책임자로 각각 선임해 회사의 새로운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드림어스컴퍼니 김동훈 CEO 내정

오디오 플랫폼 플로(FLO)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신입 최고경영책임자(CEO)로 김동훈 플랫폼사업Co. 사업대표를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김 내정자를 신입 CEO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그간 오디오 플랫폼 플로(FLO)를 중심으로 음악과 오디오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플랫폼 사업 전반을 이끌어왔다. 2019년 드림어스컴퍼니에 입사한 뒤 미디어콘텐츠 사업부장, 플랫폼 사업부무장을 지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신설된 3개 CIC 중 플랫폼사업Co. 사업대표를 수행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美 위상수학자 설리번 뉴욕대교수 수학 노벨상 ‘아벨상’ 수상자 선정

미국의 위상(位相)수학자이자 카오스 이론가인 데니스 퍼넬 설리번(81·사진) 뉴욕 스토니브룩대학 교수가 올해 아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벨상 위원회는 설리번 교수가 위상수학 전반, 특히 대수와 기하, 동역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상수학은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물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물리학에서 경제학, 데이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고 아벨상 위원회는 설명했다.

미시간에서 태어난 설리번 교수는 텍사스의 휴스턴에 위치한 라이스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대 후반 카오스 이론(불안정하고 불규칙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공부를 시작한 설리번 교수는 수십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학계의 난제를 풀어내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김서영 기자 0jung2@

카카오페이 신원근 “주가 20만원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대표 내정자)

신원근(사진)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가 주가 20만 원에 도달할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원근 대표 내정자가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대표 내정자가 발표한 실행안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매도 제한, 재매입 및 이익 환원, 책임경영 및 사회적 책무 강화, 충실한 의무이행을 위한 재진입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발표는 카카오페이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회복과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해 논의 중인 ‘신뢰회복협의체’의 합의 사항이다. 위원장인 배영포 항공대 교수(현 카카오페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신원근 대표 내정자, 카카오페이 임직원,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이 협의에 함께하고 있다.

신 대표 내정자는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사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



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신 내정자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 5인은 2021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냈다. 아울러 경영진 5인은 주식 재매입에 법적 제약이 없어지는 시점부터 2022년 내 분기별로 회사 주식을 재매입하고, 이후 매도 시 주가와 매입 주가 간의 차액은 전부 환원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바사-IVI,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 첫 수상자 선정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최하는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의 첫 수상자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카탈린 카리코(왼쪽 사진부터) 교수와 드류 와이즈만 교수 및 전염병 대비혁신연합(CEPI)의 특별고문 토어고 달 박사가 선정됐다.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 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

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이바지한 국내외 인물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코자 지난해 11월 신설됐다. 유혜은 기자 euna@

카리코 교수와 와이즈만 교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및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되고 있는 변형 mRNA 기술을 공동 개발, 백신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고달 박사는 1999~2004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초대 CEO로 재직하며 맨델린다게이츠 재단으로부터 7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받아 빈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메드팩토, 알렌 임상총괄부사장 영입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 기업 메드팩토가 글로벌 임상 전문가 영입을 통해 글로벌 임상 역량 강화에 나선다.

메드팩토는 최근 카리오파마에서 수석임상의를 지낸 글로벌 임상 전문가 티모시 R. 알렌 박사를 미국법인 메드팩토 테라퓨틱스의 임상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렌 임상 총괄 부사장은 독일 머크, BMS, GSK,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20여년의 임상 경험 노하우를 가진 중앙 분야 임상 전문가다. 중앙약 약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성장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인 카리오파마에서 임상 개발 담당 부사장을 최근 역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별세

미국에서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올브라이트 가족은 성명을 내고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90년대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상원에서 함께 의원 활동을 한 경력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내고 “상원 외교위원회 시절 그와 함께 일한 것은 내 상원 경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며 “미국은 없어서 안 될 국가라던 고인의 열렬한 믿음을 항상 간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자리까지 오르면서 냉전 이후 서방 외교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장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세력 확장을 옹호했으며, 전 세계 대량학살과 인종차별, 핵무기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2000년엔 미국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주했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크라이나를 지

클린턴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되고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당시 그는 유엔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돼 주었고, 그 후 미국은 세계 주도권을 잡았다”며 “국무부에서 고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열정적인 인물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부음

▲신익식 씨 별세, 박창우(전 저축은행중앙회 감사실장) 씨 모친상 = 24일, 양주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6일 오전 10시, 031-863-4444

▲이영분 씨 별세, 신순희·화수(전 전자신문 편집국장) 씨 모친상 = 24일, 인천 송도하나장례문화원 특2호실, 발인 26일 오전, 032-832-4443

▲김인식 씨 별세, 김영한(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전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윤환(축산업)·승환(전 삼성SDS 부장) 씨 부친상 = 23일, 의성 안계농협장례식장 별관 특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54-862-1910

▲이채성 씨 별세, 이은훈·혜훈(제17·18·20대 국회의원)·지훈·요훈·승훈 씨 부친상, 박태영·김영세(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염석현(의사)·성영관(경북대의대 교수) 씨 장인상 = 24일, 마산의료원 장례식

장 2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대전호국원, 055-249-1400

▲강정순 씨 별세, 박근영(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하나금융투자 부사장)·근욱·근수 씨 모친상 =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6일 오전, 02-3010-2000

▲오영심 씨 별세, 김기홍(전남도 자치행정국장) 씨 장모상 = 24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62-250-4455

▲변정자 씨 별세, 송승은(부산일보 이사) 씨 모친상 = 2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051-636-4444

▲박재현 씨 별세, 박상영(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씨 부친상, 장보영(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씨 시부상 = 23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특1실, 발인 28일, 031-382-5004(조문은 26일 오전 10시까지)

인사

- ◆KBS △전략기획실 데이터정책부장 이광열
- ◆KBS비즈니스 △이사 박유한
- ◆KBS아트비전 △사장 김영도 △이사 배안철
- ◆CBS △보도국 정치부장 이용문
- ◆한국경제신문 △상무 광고국장 송광림 △상무보 논설위원실장 조일훈 △편집국장 정종태
- ◆미디어펜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겸 부장 변진성
- ◆더퍼블릭 △편집국 정경부장 김종연

자본시장 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인류애적 혹은 시장적 관점에서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

경제적 산출물이 전쟁에 투하되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했을 때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경제적 피해 역시 커지게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는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주요 원자재 수출국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 두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막히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부담은 전 세계에 보다 크게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음에도 종전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군사 전략 전문가가 아니지만, 양국 모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혹은 조금만 더 버티면 상대편의 기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방의 승리를 지연시키면서 전쟁의 장기화로 연결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긍정적일 수 없다. 에릭 홉스봄은 20세기 이후의 전쟁을 '총력전'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단순히 군대끼리 충돌하는 과거와 달리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총체적 산출물을 모두 투하해서 벌이는 전쟁이기에 총력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군사적인 역량뿐 아니라 경제력 역시 전쟁에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 산출물이 전쟁에 투하되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했을 때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경제적 피해 역시 커지게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이 될 것이다. 불의의 공급 등으로 가족과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온다.

러시아 국민 역시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바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 금융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위프트 규제뿐 아니라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역시 동결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로의 자금 흐름을 막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돈을 받을 수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다. 돈을 받을 계좌를 정지시켜 버리는데, 그리고 해외 은행에 예치한 자금들을 모두 동결시키는데 추가적인 거래나 결제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금융의 중단은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활동의 중단은 러시아 경제 성장에 궤멸적인 타격을 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을 촉발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러시아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루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서 해외로 이탈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전쟁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금융 자산 매매를 제한하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입을 막는 이른바 자본 통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하면서 더 높은 금리를 대가로 이탈을 제어하려는 정책 역시 도입한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출입이 막히면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

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된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20%로 높아진 고금리의 폐해 역시 러시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결국 지금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으로 피해가 국한되지는 않는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주요 원자재 수출국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 두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막히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부담은 전 세계에 보다 크게 작용하게 된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와 고공비행을 하는 각종 원자재 가격을 보면,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순히 물가 상승을 넘어 글로벌 소비 둔화 및 기업들의 원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어김없이 나서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은 글로벌 중앙은행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 안정에도 힘써야 하는데,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

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비행한다면 과거와 같이 금리 인하 등의 경기 부양에 나서기 쉽지 않다.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성장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긴축으로의 전환을 알린 바 있다. 과거에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 앞에서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우회적 통로를 제어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규제가 추가될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번져나갈 개연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으로 신음했던 바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것이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 인류사의 바퀴가 될 수 있기에, 그리고 코로나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될 수 있기에 지금의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과학 놀이터



이난영 과학칼럼니스트

어나니머스의 對러시아 선전포고

퓨터나 휴대폰이 없는 삶이 불가능해진 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는 보물을 훔쳐 내려는 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심심할 때 한 번씩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것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전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마음먹고 데이터를 빼내겠다고 덤비면 사실 이런 정도로는 내 소중한 정보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 결국 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범죄 방식을 숙속들이 아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즉, 해킹에 귀신처럼 능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 집단을 '화이트햇 해커' 또는 '화이트햇'이라 부른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해킹이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보안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빼돌리는 '블랙햇 해커'들의 행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해커들을 이처럼 범죄자와 수문장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두 그룹 모두에 발을 하나씩 담고 있는 이들도 있다.

소위 말하는 '그레이햇 해커'가 바로 이런 이들을 칭한다.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양면성을 띠고 있다.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보안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점은 화이트 해커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준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한다는 과정은 블랙 해커와 동일하다.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그레이 해커 대부분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그레이햇에 속하는 한 집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익명을 뜻하는 이름의 '어나니머스(Anonymous)' 이야기다. 사실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들에게서 공격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14년의 일로 이들이 내세운 해킹 공격의 이유는 미디어 왜곡 그리고 시민 억압이었다. 물론 실제로 해킹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경고의 주체가 진짜 어나니머스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당시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어나니머스의 이런 핵티비즘, 즉 정치적 해킹에 대해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이버 로빈후드'란 별명이 보여주듯 이들의 행위에 대한 공감 또한 만만치 않게 크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번 러시아 정부에 대한 사이버공격만큼은 큰 성공을 거둬서 이 무의미한 전쟁이 조속히 막을 내리는 데 한몫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만큼은 그 목적이 수단의 불법성을 가리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기술의 윤리'라는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된다.

기자수첩



김예슬 / 자본시장1부

성 평등을 위한 어떤 3%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사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성 이사를 선임했거나, 혹은 선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데려온 사외이사라는 것이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사내이사 중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하다.

기업 내 성 격차를 해소하는 건 단순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사회적 책임(S)을 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미셸 에드킨스스튜어트집투자부 글로벌 이사는 "이사회 내 다양성 부족은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약화하고, 이는 결국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리더십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힘을 보탠다. 씨티그룹의 '여성 기업인' 보고서는 기업 내 성 평등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이 2~3% 늘어나고, 일자리는 4억330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성 평등을 위한 링 더벨(Ring the Bell)' 행사를 열고 성 평등을 비롯한 ESG 경영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울리는 작은 종 위에는 높은음자리표가 달려 있다. 높은음자리표는 성별 간의 조화와 화합을 의미한다고 한다. 조금은 느린 종소리지만, 다음 3%를 위한 첫발인 셈이다.

viajaporlune@

이투데이, 말투데이

☆ 토머스 모너건 명언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Domino's Pizza)'를 설립한 미국의 기업가. 최고의 피자 양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집중 연구한 그는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300군데가 넘는 다른 피자 식당을 직접 방문하며 최고의 기술과 경영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937~

☆ 고사성어 / 중석몰축(中石沒鐵) 돌에 화살이 깊이 박혔다는 말이다. 정신을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원전은 사기(史記)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이다. 궁술과 기마술에 재주가 남다른 맹장 이광(李廣)이 사냥하러 갔다가 풀숲 속에 호랑이가 자는 것을 보고 급히 화살을 쏘아 맞혔으나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까이 가 보니 그가 맞힌 것은 화살이 깊이 박혀 있는 호랑이처럼 생긴 돌이었다. 다시 화살을 쏘았으나 이번에는 화살이 튕겨져 나왔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시사상식 /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과 청각이 각각 55%와 38%,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7%-38%-55% 법칙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이 발표한 이론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38%, 보디랭귀지는 55%의 영향을 미치지만, 말하는 내용은 겨우 7%만 작용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즉,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시각과 청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신조어 / 웃안웃 '웃기는데 안 웃게'의 줄임말이다. 웃기면서 슬픈 상황을 표현할 때 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코로나 이후의 '서울 관광'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등산·트레킹, 서울의 새 관광상품으로”

“서울 관광은 그동안 고궁, 전통시장 등 몇 가지 관광자원에 한정돼 발전해 한계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의 과감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

23일 이투데이와 만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금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관광시장을 선점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3년간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 대표는 “엔데믹 시대로 전환하려는 이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에 위해 서울 홍보에 투자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범죠폭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볼거리가 있는 도시,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관광, 취업·창업 승수효과 높아

서울관광재단의 연구 결과, 2019년 서울지역 관광지출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26조290억 원으로 승용차 87만 대에 달했다. 길 대표는 “관광은 외화가득률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은 취업·창업 등 다양한 지표에서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길 대표는 “관광에 대해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관광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로 착각한다”며 “기존의 랜드마크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 서울 관광의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관광재단에 부임한 길 대표는 하니문여행사·코레일관광개발을 이끈 현장 경험을 가졌다.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로 재직 중에는 레일크루즈 ‘해랑’,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류관광 열차’ 등 테마 열차를 개발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가 서울에서 준비 중인 신규 사업은 ‘등산·트레킹’이다. 길 대표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강북구, 도봉구 등 도심등산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해 관광객 누구나 쉽게 방문해 산악 관광을 할 수 있고 관광 관련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등산안내센터 리모델링 6월 오픈

서울관광재단의 관광연구팀에서 전 세계 7개 권역(동북아, 동남아, 미주, 구주, 대양주, 중동·아프리카, 기타) 296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가 서울 등산·트레킹 코스를 체험하고 싶다고 답했다. 62.5%는 재단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도심등산관광안내센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했다.

길 대표는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서울에서 왜 산을 가지 않았느냐 물으니 정보가 없어 몰랐다고 하더라”며 “도심등산관광안내센터에서 등산복과 등산화를 대여해주고 왕복 3시간가량의 코스를 만들어 산과 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강북구청, 도봉구청, 블랙야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6월 오픈을 계획으로 도심등산관광안내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중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관광시장을 선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고아란 기자 photoeran@

**고궁·전통시장 등으로는 한계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 선점 위한
마스터플랜, 지금이 골든타임**

**‘도심 가까이 등산할 수 있는 산’
외국인이 서울 와서 놀라는 점
강북·도봉구와 MOU 코스 개발**

**관광업계 경영위기 극복 자금
차등없이 300만원, 만족도 높아
마이스산업 회복에도 힘 쏟을 것**

1500만 반려동물 가족을 대상으로 반려견 동반 서울 관광코스도 개발 중이다. 길 대표는 “관심 있는 구와 함께 펫카운티를 지정해 공원도 만들고 사료나 미용도 집적된 곳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존속을 위해 운영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16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광 회복을 준비하던 관광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사업장 운영과 관광 재개를 위한 차등 없는 현금 지원으로 사업체당 사업장 유지 명목으로 300만 원의 경영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도 반응 좋아

길 대표는 “지원금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도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시장 재개를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했다. 170개사를 대상으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했다. 선정된 관광콘텐츠 1건당 협업 분야는 최대 2000만 원, 일반 분야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개발에 필요

한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94.7%,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97.8%에 달했다.

마이스(MICE) 산업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총칭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 중 하나다. 서울은 세계 국제회의의 통계를 공식 집계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IA)에서 전 세계에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3위에 6년째 선정됐다.

“사람이 많이 찾아야 도시가 발전”

이와관련, 서울시와 함께 총 27억 원을 지원한다. 엔데믹에 대비해 현장 참가자가 20%가 넘는 국제회의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첨단기술 사용료, 기획사 비용, 행사장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길 대표는 “운영정 배우의 오스카상 수상, ‘오징어게임’ 등 문화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면 마이스업체에 한류 문화적 요소를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데믹 후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초기에 혼란스럽지 않을까. 길 대표는 “올 하반기에 잠시 엠티박자가 날 수 있지만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대표는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시는 유명도시가 된다”며 “산업을 고도화되고 있어 사람들이 이동하는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게 관광이다. 코로나에 잠시 멈췄지만, 사람이 많이 찾아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 관광도시로 성장하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나 인력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사설

청와대-당선인 또 충돌, 언제까지 싸움만 할 건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놓고 대선인 측이 또다시 한국은행 차기 총재 인사를 두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23일 지명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양측의 진실공방과 함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 당선인도 24일 “차기 정부와 오래 일할 사람을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가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양기에 이처럼 신·구 권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차례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전례가 없다. 협치(協治)는커녕 정상적인 정권인수·인계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민 불안만 커진다.

청와대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인사의 고유권한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차기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조롭게 정권을 넘기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의 형식적 인사권이 있다 해도,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결정도록 협의하고 추천을 받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

갈등의 핵심이 한은 총재 인사보다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에 있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공식인 감사위원 자리를 청와대가 채워,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 피해를 키운 사안들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감사와 책임 추궁에 제동을 걸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곧 떠날 문 대통령의 인사권 고집이 새 정부 발목잡기이자 여론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신·구 권력이 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엄중하다. 코로나19 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공급망 충격에 걸친 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어느 때보다 가중하는 상황이다.

후임 한은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는 자질이나 경력, 역량 등의 측면에서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다. 윤 당선인 측도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라면 청와대가 적극적인 의지로 차기 정부에 협력해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다. 당선인 측도 보다 정제된 입장과 메시지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킷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 지역까지 산림 2만여 헥타르(ha)를 태운 산불이 진화된 지 13일이 지났다. 경북 울진군 두천리 마을의 검게 그을린 나무들과 주택들이 거센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 참상을 실감케 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산불 피해 복구는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복구되어 하루빨리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24일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한 주택에 불에 타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화재 진화에 사용된 분말 소화기가 사명을 다한 듯 쓰러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LG 창립 75주년]

75 LG

사랑 가득한 75년, 함께 만드는 미래

지난 75년간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LG는 고객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